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시는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11월 11일 (토) 제 1945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 ‘디지털 영’에 우리 아이들이 사로잡혔다

#### 디지털을 제한하고 대체하는 패턴을 개발하라 생명을 빼앗는 디지털을 생명을 주는 것으로 바꾸라

술과 휴대폰 이 두 가지가 그토록 유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유사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떤 도움을 줄까?

영향 아래에서

술과 휴대폰, 둘 다 개인에게 작용하는 외부 영향이다. 도수가 높은 알코올의 경우, 그 물질을 흔히 ‘영’(spirit)이라고 부르곤 한다. 사람들이 증류주에 이 용어를 붙이기 시작한 데에는 신비한 역사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말이 도무지 잊히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다는 점이다.

술은 과음한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 적당하게 마셨다면, 술기운은 빨리 사라지고 몇 시간 내에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술이라는 영이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초대받으면 어떻게 될



불길한 교환 속에서 확대하는 주체가 서서히 술로 바뀐다. 그리고 확대의 피해자는 당신이 된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악한 영처럼, 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을 왜곡시켜 결국

슬그머니 위험이 들어오다

디지털 시대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각종 장치를 우리 집에 공개적으로 초대하는 세상을 가져왔다. 좋은 부모는 중독성 있고 유해한 물질을

를 자녀가 새로운 기술 세계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여겼기 때문이다.

처음만 해도 잘 몰랐지만, 이제 연구 결과는 분명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화면과 소셜 미디어는 중독성이 강

“휴대폰 때문에 우리 애를 잃었어요. 애가 아예 딴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탄하는 부모의 말을 듣곤 한다. 이건 마치 “병으로 남편을 잃었어요” 라고 말하는 아내의 말과 비슷하다.

까? 술은 이제 그 사람 안에서 영주권을 갖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바꿔버린다. 술을 남용하는 주체가 처음에는 당신이다. 그러다가

에는 아예 달라진 성격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만든다. 이와 같은 현상은 거의 모든 중독에서 발견된다. 무언가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주의 깊게 관찰하지만, 그럼에도 디지털이라는 기술 자체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더 이상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많은 위험이 생겼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자명하다. 부모들 대부분이 디지털 기

고 행동을 바꾼다.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단절되고, 더 비참하고, 외롭다. 대부분의 중독성 물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장치는 기쁨을 약속하지만 불행을 더 많이 가져온다.

(3면으로 계속)



2023 KAPC 목사장로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장로 기도회 성료

#### “KAPC여 일어나 ‘오직 예수’ 이 복음을 전하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 김성국 목사) 목사장로기도회가 11월7일부터 9일까지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담임 한일철 목사)에서 은혜 가운데 개최됐다.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담임 한일철 목사) 찬양팀의 찬양과 한일철 목사 인도로 시작된 첫째 날 집회는 서명환 장로(총회 회계) 기도, 김기환 목사(가든) 특송, 조성백 목사(가주) 성경봉독, 설교 김성국 목사(총회장), 환영사 허상희 목사(가든)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장 김성국 목사는 ‘다시 복음으로’(로마서 1:13-17)의 제목으로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그래함목사의 집회를 기억하는가?”라고 질문하며 말씀을 이어갔다. 그는 “그 집회는 참석한 이들이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울며 기도했던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올해 한국에서 지난 6월 빌리그래함전도대회 50주년 기념 대회가 있었다. 그러나 50년 전의 그 열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본문에 나타난 바울을 제시했다. 김 목사는 “로마

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다. 로마엔 이미 교회도 세워졌지만, 그곳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동성애 자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등 추함이 가득했다.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다시 전하겠다고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있었다. 바울은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형이라고 외치며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과 심판을 선포했다. 우리 총회는 왜 존재하고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 총회가 무엇을 하라고 불러내셨는가? 이 복음을 외칠 마지막 보루 같은 교단이 우리 교단이다. 이 외침으로 심판 받아야 할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첫째날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성국 총회장

(10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푸른초장 한인철 목사



가독교 명저로의초대 이윤석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말씀과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있는 치유 기적의 현장.

**복음전도 치유집회**

11/13(월)~17(금) 7:3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강사: 최종천 목사

**최종천 목사** 현, 꿈이있는 교회 담임  
세계치유사역자 전문훈련원 원장  
전, 성민대학교 교수, 대학원장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이사야 58:8)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주일 1부7:20am, 2부9:10am, 3부11:20am, 4부2:00pm | 금요성령집회 7:30pm | 새벽예배(일천번제)월~금 5:30am, 토 6:00am  
150 S BROOKHUST RD. FULLERTON, CA 92833 | TEL: 714.446.1000 | www.gracemi.com

발행인 칼럼

부업중에 부업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백두산서 자란 범은 백두호라고/ 부업 중에 부업으로 불리우느니라/ 너희들은 오산에서 자라났으니/ 어디를 가든지 오산이로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세운 오산학교 교가이다. 오산학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도 이 짧은 교가에 큰 울림을 갖는다. 백두산에서 자란 범은 다른 곳에서 자란 범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부업"은 "범"의 사투리이다. 그렇다. 부업이라고 다같은 부업이 아니다. 자라난 곳에 따라 그 용모와 용맹이 다르다. 온 세상에 도자기가 많다. 모든 도자기가마다 흠으로 빛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굽는 가마가 어디냐에 따라 결, 모양, 빛,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 그 빛이 신비하고 영동한 고려청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 특징의 전부가 아니다. 그 시대에 특정 지역의 가마에서 지금까지 빛나는 청자를 구어낸 것이다. 모든 것을 한칼에 가르는 멋진 칼이 어찌 어설픈 대장간에서 만들어지겠는가. 그것은 극히 경륜 깊은 대장간에서만 잘 두들겨 만들어진다. 콩나물과 콩나무 조차도 그 자라난 곳이 다르다. 전자는 온실에서 크고 후자는 야생에서 성장한다. 하루 아침에 뿔허나갈 콩나물보다 오래동안 자기가 자란 자리를 지키는 콩나무가 늙는다.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위대한 문명들은 그 발생지역과 아무런 연관없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곳에서 나타날 문명이 나타났을 뿐이다. 아무데서나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문명이라면 왜 인류는 긴 역사 속에 몇몇 문명만을 만났겠는가. 돌려 살펴보니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놀라운 통찰력으로 간파했듯이 일정 지역이 다른 지역을 지배할 수 있었던 총과 균과 쇠도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선명히 구분되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났다. 예수님의 영광스런 족보 속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홀로 피었다지는 들꽃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늘 아버지가 약속한 불변의 언약과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 안에서 자라고 사는 자들이다. 땅의 것을 악착같이 내 손으로 끌어 모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스꽝스런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며 속임에 넘어지는 자들이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고 누구와 비교하며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다. 아름다운 장미는 가지 속에서 피는 것을 알고 뾰족한 가지같은 환경에 눈물짓는 것이 아니라 여유있는 미소를 띠는 자들이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진짜 "나"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엄청난 능력과 한없는 은혜라는 자원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에 하루하루를 조바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생을 담대하게 산다.

부업 중에 다른 부업이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우리는 분명히 다른 종족, 다른 사람이다.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무시하지 말라

지옥 교리를 선포해야 하는 이유

"죽기 30초 전."

이것은 판타지 작가 브랜던 샌더슨이 피할 수 없는 일을 불길하게 예시하는, 등장인물이 죽기 전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통찰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당신은 어쩌면 판타지 소설이 주는 불멸의 매력을 찾는 독자에게 이런 식의 표현이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샌더슨의 Stormlight Archive 시리즈에 매혹된 수백만 명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종말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인간 영혼에 깊은 의미를 던진다.

나는 누구라도 이와 비슷하게 죽음 직전의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차가운 내레이터가 그 사람의 남은 수명에 대해 당신의 귀에 속삭인다고 상상해 보라. 정말로 기이하고 끔찍한 지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과 맺으려는 관계의 방식을 근본부터 바꿀 것이다. 엄청난 현실은 차원이 다른 긴급성을 불러일으킨다. 시간이 없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 그 이상이다. 우리는 모두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역사적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는 별개로 지옥, 즉 악인들이 의식적으로 영원히 고통당하는 실제 장소가 무자비한 입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시간이 없다. 지금이 소중하다. 그들이 모르는 지식을 안다는 이 점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주는가?

선교사의 짐

아마도 선교사만큼 그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요삼 1:7) 나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할 만한 유일한 이름"(행 4:12)이다. 그들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것이다(유 1:23). 많은 선교사가 그들의 부르심 뒤에 숨은 중심 동기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즉시 인정한다. 선교사의 삶과 소명이 가진 부담은 지옥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서 죽음이 얼마 남았는지 알려



주는 내레이터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겪어봐서 잘 안다. 동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우리는 종종 먼 거리를 운전하며 가는 길에 보이는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곤 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장소에 멈췄는지, 우리가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동안 수백 곳에서 수천 명을 만났다. 그렇다. 나는 새로운 신자들을 보고 기뻐한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뼈아픈 인식이 내 머리를 떠난 적이 없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동네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누군가가 막 죽었다는 의미였다.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 봤을까?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일까? 이것은 마치 비명을 지르듯 세레나데를 부르는 청년처럼 내게 쏟아지는 나 자신을 정죄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죽음이라는 장막 바로 너머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음을 한 번 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선교사가 받는 유혹

이런 부담과 함께 따라오는 유혹이 있다. 지옥의 교리를 잠시 제쳐두면 어떨까? 그런 전혀 어렵지 않다. 쉬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장될 것이라고 믿는 보편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영원한 저주는 불

필요하며 성경의 비유에 지나지 않고 말할 수도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즉시 바로 사라지거나 지옥에서 잠시 고통을 받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예 없어진다는 영혼 소멸론(annihilationism)도 나름 좋은 방식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불신자는 아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에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도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지옥을 제쳐두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예 거기에 관해서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 남았다고 해도 부담은 없다. 영혼에 대한 긴급성은 함께 줄어들다. 한때 선교사를 감동시켰던 지옥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밤에 들리는 통곡 소리, 사방에 쌓인 장작더미, 죽음이 31초 남았던 이웃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동정이 부른 피로감 또는 문화 충격이라고 치부하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옥에 관한 격정과 부담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의 포기를 어떤 사람은 "사람이 이긴다"라고 표현한다. 밀라드 에릭슨이 관찰한 바와 같이, "영원한 형벌의 교리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비기독교적인 것처럼 보이며 종종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먼저 비신화화되는 주제의 하나이다." 그러면 왜 선교사는 그 주제가 가져다주는 끊임없는 고뇌를 고집해야 하는 걸까? 에릭슨이 계속해서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옥의 교리를 고려해야 한다. ... 왜냐하면 그런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Hisfinger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문화출판사 히즈핑거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실시간 진행협의 출판사로 전화 또는 이메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립니다.
출판문의: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플레루 FleuRae 김성국 목사 신간 컬럼집

# 그는 현대판 '하나님의 도성'을 쓰고 싶어 것이다

### "하나님의 도성은 성경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현대 문화 속에 민감하게 참여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청사진을 제공한다."



5세기 로마에 온 것을 환영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유명한 사도 및 정치 이론사인 하나님의 도성을 집필할 당시의 로마는 말 그대로 복잡하고, 비틀거리고, 분열되고, 자기모순에 가득 찬 사회였다.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이 책은 당시 로마 상황을 반영하는 현대 사회를 향한 문화적 비평에 필요한 강력한 틀을 제공한다.

자, 다음과 같은 사회를 만난다면 어떤 느낌일까? 아무런 논리도 없이 오로지 상대를 향해 소리만 지르는 완강한 파벌성 대립 사회. 자유와 개방성에 대한 지축이 가까운 수사학으로 시대가 승

상하는 이상을 향한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 압박을 교묘하게 가리는 사회. 엘리트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및 경제 세력의 공모가 판을 치는 사회. 그리고 미신을 따르는 수준

을 넘어섰다고, "역사의 올바른 편"에서 살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정작 수많은 기괴한 미신과 오래된 편견으로 가득 찬 사회. 이런 사회,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지 않은가?

다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걸작에서 뽑은, 그리스도인이 현대 문화에 참여하는 방식을 심화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섯 가지 도구이다.

<4면으로 계속>

## '디지털 영' 에 우리 아이들이 사로잡혔다

<1면에서 계속>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디지털 시대의 정신이 우리 자신이나 아이들을 통제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술과 같은 전통적인 유해 물질에 관해서 절제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부모와 법률이 접근 자체를 제한한다. 중독성을 가진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을 취해야 한다. 디지털 소비를 규제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건 너무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기술이 아이들을 잡아삼킬 것이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는 뭐가 있을까? 미국의 법적 음주 연령은 21세이다.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지만, 법 시행 메커니즘은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부모는 지혜롭게 자녀를

위해서 결정해야 한다. 나는 16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소셜 미디어의 금지를 제안한다.

책임감 있는 성인이 포도주 두 잔을 음주 제한으로 설정하듯, 어린이와 성인 모두 화면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하루 최대 한 두 시간을 제안한다. 앤디 크로우치의 The Tech-Wise Family 같은 지침서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안(예를 들자면, 집의 열린 공간에서만 화면을 보는 것)을 구현한다면, 디지털 시대에 성공하는 자녀로 교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한 습관이 하루아침에 들지는 않는다. 중독성 있는 디지털 기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도록 다양한 예방 아이디어를 한 번에 하나씩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구현해야 한다.

책임감 있는 성인이 포도주 두 잔을 음주 제한으로 설정하듯, 어린이와 성인 모두 화면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하루 최대 한 두 시간을 제안한다. 앤디 크로우치의 The Tech-Wise Family 같은 지침서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안(예를 들자면, 집의 열린 공간에서만 화면을 보는 것)을 구현한다면, 디지털 시대에 성공하는 자녀로 교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한 습관이 하루아침에 들지는 않는다. 중독성 있는 디지털 기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도록 다양한 예방 아이디어를 한 번에 하나씩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구현해야 한다.

절박한 시대에

어쩌면 당신은 '이젠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디지털 중독으로 자녀들이 학교, 스포츠, 가족 관계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능력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그제 현재 당신의 현실이라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즉

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녀를 위한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하라. 일정 시간을 정해서 화면 시청 시간을 크게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보지 않도록 하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30일간의 청정 식습관 도전으로 생각하라. Screen Strong은 가족이 디지털 기술로부터 완전한 해독을 구원하도록 돕는 훌륭한 30일 계획을 제공한다.

핵심은 디지털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로지 대답한 시도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전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자녀를 지배하는 디지털 영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엡 5:18)라고 경고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중독이 우리 가족을 사로잡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벗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 몸은 성전이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도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시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므로 디지털을 제한하고 대체하는 패턴을 개발하라. 생명을 빼앗는 디지털을 생명을 주는 것으로 바꾸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롬 13:14).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셜 미디어에서 로그아웃하고, TV를 꺼라.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라. 식사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픽셀의 빛에 취해서 잠자리에 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빛의 인도함을 받아 잠자리에 들라. 자녀가 당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자녀는 당신을 보고 그대로 본받는다.

기술이 나쁘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기술의 성취는 많은 유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많은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성경은 포도주를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남용에 관해서만은 엄중하게 경고한다. 나 자신과 아이들이 디지털 중독이라는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와 신실함으로 이 위험한 디지털 시대의 바다를 항해해야 한다.

by Isaac Serrano, TGC

## 시론

# '헤쳐 모여!' 기도의 자리로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지역마다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굳이 어려움의 이유를 항목별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팬더믹을 지나면서 나타난 이유를 찾아보면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팬더믹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어진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교회들은 그 거리를 당겨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있다.

이 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바꾸어버렸다. 교회의 당연한 구성요소들이었던 예배와 교제와 전도와 같은 일들이 외면당하고 있는가 하면 문명의 발달, 즉 인공지능화되어가는 기기의 발달로 사람보다 기계와 더 친해진 문화의 변화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레크리에이션 게임 중에 '의자빼기 놀이'가 있다. 돌리던 사람보다 의자를 한 개 적게 배치하고 그 주위를 '둥글게 둥글게~' 노래를 부르며 돌다가 '멈춰'라는 구호에 빨리 가서 의자에 앉아야 살아남는 이 게임은 탈락자가 빠지고 나면, 또 하나의 의자를 빼내고 또 다시 즐겁게 '둥글게 둥글게'를 부르며 같은 방법으로 최후까지 남는 한 사람이 승리하는 놀이이다.

그런가 하면, 체육시간이나 신병훈련소에서 많이 듣는 구호가 있다. '헤쳐 모여!' 줄이 엉클어져 있을 때, 쉬었다가 다시 집합할 때 '헤쳐 모여' 구호를 외치면 빨리 바르고 질서 있는 줄 대형을 맞추어 서야 한다.

팬데믹 후 교회의 모습이 '의자빼기 게임'이 아니라 '헤쳐 모여'가 되기를 바란다. 탈락자가 생기면 또 한명의 탈락자가 나오도록 의자를 빼 버리는 게임이 아니라, 어수선하고 흐트러진 것 같지만 '헤쳐 모여' 한마디에 다시 질서 있게 잘 맞춰 선 줄과도 같은 교회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 11:12)는 말씀을 바로 해석해 적용해야 할 때이다. 침노한다는 단어를 공격해서 빼앗아온다는 관점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열정을 다하는 모습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말씀을 '의자빼기 게임'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신앙생활은 실망하고 피곤해지고 말 것이지만 '헤쳐 모여'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새로운 기대감으로 서로 돕고 이해하는 한몸 의식이 생기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 교회는 현역 전투 군인같은 정신이 필요한 것 같다. 한국의 예비군 훈련시 조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미 군대를 다녀온 예비군들이 시간만 때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성경이 '헤쳐 모여!'라고 명령을 내린 시대와 같다. 그런데, "어, 그냥 하던 거 하지... 하던 대로 합시다~"라면서 '헤쳐 모여'달라는 지휘통솔에 따르지 않는 향토 예비군 같은 마음으로 서성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교단(KAPC)이 이번 주간 전국 목사장로기도회를 갖고 있다. 교회에서 가장 흔한 제목이 '기도회'이고, 교계연합행사에서는 들러리 같은 시간이 되어버린 '기도회'이지만, 또한 교회의 가장 고상한 제목이 '기도회'가 아닌가. 전국 노회별로, 교회별로 흩어졌던 교회지도자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헤쳐 모여'라는 명령구호가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빌리그래함 라이브러리를 방문해 이 시대의 전도자였던 빌리그래함 목사의 열정을 배우는 시간도 갖는다. 흩어져 있다가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은혜가 모든 지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란다. 맞다. 문제투성이인 지금은 특별히 더욱 기도할 때, 전도할 때이다.

djlee7777@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다민족교회</b></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영양분류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 821-1112, estross@yahoo.com 68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b>몽고메리교회</b></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 태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3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47</p>	<p><b>벤틀교회</b></p> <p>담임목사: 백성중</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다민족: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b>보스턴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지, 유년, 청소년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603)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opkinton, MA 01748</p>
<p><b>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b></p> <p>담임목사: 차용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Tel: (703) 581-9235, www.koreanc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p>	<p><b>알칸사 제자교회</b></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b>앵커리지열린문교회</b></p> <p>담임목사: 함성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제단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p>	<p><b>영생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백운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442-0288, Fax: (215) 4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b>킬린은누리교회</b></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410) 4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03) 636-6675, www.tacoma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lachpress@earthlink.net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lachpress@earthlink.net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lachpress@earthlink.net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lachpress@earthlink.net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lachpress@earthlink.net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 더 큰 이야기 속으로...

1950년부터 출판한 C.S. Lewis의 <나니아의 연대기> 이야기는 세월을 초월한 판타지 작품으로 나이를 초월하는 큰 매력을 가진 작품이다. 꼬마들이 다락방에 올라가 쓰지 않던 책장문을 열고 거기에

붙여진 그림 속으로 들어가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간다. 마귀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를 사자(메시야)와 함께 싸워서 좋은 나라로 만들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줄거리이다. 이 이야기는 루이스가 자기 조카

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환타지 형식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우는...> 이 땅에서 엄청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엄청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 화평과 화목되는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의 아들의 나라에서 죄 사함과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주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가운데 화목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평화와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언젠가 미국의 아마쉬 공동체 마을의 초등학교 50여 명이 사살되어 죽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저들이

부랑아를 선도하여 학교 관리인으로까지 일자리를 주었던 젊은이가 마약에 취해 한 마을의 어린이들을 몰살하는 대형 총기 사건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자신의 자녀들 50여 구의 시신을 매장하면서 자살한 범인의 무덤도 함께 만들고 자녀들과 똑같이 그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었다. 두 아들을 잃고 망연자실해야 할 엄마와 인터뷰를 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런 배은망덕한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가?" 그 엄마는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용서해야 할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다. 이 용서의 나라 이야기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 우리가 속한 불안정한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영성은 곧 나의 영성이고 내 영성이 곧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성이다. 따라서 교회를 뛰어넘을 영성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기에 내 영성 관리는 곧 교회의 영성 관리와 직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불안정한 교회에 속하여 있지만, 우리가 바라고 세워가야 할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여러 해 전 아프리카니스탄의 탈레반에게 피랍되고 두 명의 순교자가 발생한 한국 교회의 대형 사건이 있었을 때... 납치된 젊은이들이 가장 괴로웠던 일은 남녀 각각 3명씩이 화장실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면서 자신들의 배설물을 자신들이 처리해야 했던 일들은 과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존감을 상실케 하는 이 아픔 속에서 정신 이상을 앓게도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 나라가 선교에 문을 열어준다면 모두 현장으로 달려가겠다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현실적인 불완전한 교회 안에는 오종 품 싸는 이웃들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깊은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야 한다. 이제 발밑에 있는 잔물결을 보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미숙한 신앙은 버리고... 좀 더 높고 좀 더 온전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남들이 갖지 못한 깊은 자신들만의 깊은 이야기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도저히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세력간의 전쟁도 사실은 앞으로 50년만 지나면 모두가 후회할 역사의 탄식 거리가 되고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작은 이야기가 되어갈 뿐일 텐데... 미라미리 모두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절실한 세상이 되었다.

jkim47@gmail.com

# 푸/른/초/장

## 한일철 목사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NC)



몇 해 전에 가족이 일주일 동안 자동차로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운전하며 느꼈던 것은 매일 다른 환경에서 여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도 있었고, 흐린 날도 있었고, 바람부는 날도 있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 속에서 운전할 때가 있었고, 심지어 너무 안개가 끼서 바로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차로 달렸던 때도 있었고, 점심 먹고 너무 졸려 차선을 넘어서 위험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빛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에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넓은 도로를 편하게 달릴 때도 있었고, 좁고 굽어진 산 길을 매우 조심히 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그 때 운전하면서 느꼈던 것은 매일 다른 환경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날들은 어떤가요? 수많은 인생의 날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다양한 일들을 만났고 또한 경험하겠습니까? 인생의 날들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어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진인이다. 앞에는 언덕이 있고,

수목 내 가슴은 편다."는 말이 저는 좋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신은 죽었다'고 말한 독일의 무신론자 대표 '프리드리히 니

벳물이 있고, 진흙 구멍이 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 곳을 향해 가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고요하게만 갈 순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는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많을 수록 내 가슴은 편다."

모든 문구가 마음에 와닿지만 특히 "풍파 없는 항해는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많을

체가 했던 말입니다. 눈 감고 들으면 마치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신앙인의 고백인줄 알겠으나 신이 죽었다고 확신한 무신론자가 했던 말이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슴 벅차게 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힘겨운 상황에서 낙망하고 심지어 절망까지 합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내 가슴은 편다."

고난이 많을 수록 가슴이 뛰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될까요?

"고난이 많을수록 내 가슴은 편다"는 이 말은 무신론자의 입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크리스천들의 입에서 가슴벅차하며 해야 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간의 날씨도 그토록 변화무쌍하며 딱따르리는 환경

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르신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가슴이 뛰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날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가장 귀중한 선물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 3:7,8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바울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 가슴은 뛰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 모두 정직하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힘겨운 상황만 바라보고 거기에 매몰되면 내 가슴은 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어느 상황에서도 내 가슴은 떨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좋은 말을 했지만 그가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가 그렇게 말하였다고 하여도 영혼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그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캄캄한 어두움에 처해져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날마다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살아감을 인하여 나의 가슴은 오늘도 벅차게 뛰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내 가슴은 뛰고 있는가?' hanusa1962@gmail.com

# '예수님으로 인해 내 가슴은 뛰고 있는가?'

## 디모데후서 4:6-8

도 일주일간 완전히 다른데 심지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자인 내 자신이 어느 환경일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가슴이 뛰는 모습을 보여야 나의 지도를 받는 성도님들도 나를 본받아 어떠한 환경에서도 가슴이 뛰며 가슴벅차게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회 현장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기

않아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뿐만 아니라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슴벅차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딤후 4:6-8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

## 그는 현대판 '하나님의 도성' 을 쓰고 싶을 것이다

(3면에서 계속)

1. 안에 머무는 아웃사이더가 되라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지 후기 로마 문화에 대한 이런저런 목록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로마 문화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그의 글은 그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카르타고와 로마에서 수사학을 강의했고, 진심을 담은 경외감으로 키케로를 인용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 책을 쓴 건 단지 당시 쇠퇴하던 로마 문화를 부당하게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로마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화가 왜 그토록 찬란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동시에 아웃사이더이기도 했다. 현대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

리카 타가스테 출신인 그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와 이교도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무엇보다 그를 로마 문화의 외부에 두는 요소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참여라고 할 때 보통 "민감한 인사이더" 또는 "융감한 아웃사이더" 중에서 선택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 2. 문화 전체를 다루라

아우구스티누스는 후기 로마 문화 내에서도 고립된 경향만을 따로 떼어내서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문화 전체를 관통하는 심오한 구조와 근본적인 가정을 탐구했다. 즉 문화의 악덕만 아니라 미덕까지, 철학만 아니라 경건까지, 그리고 대중적 오락

만이 아니라 정치적 환경까지 고찰했다. 하나님의 도성은 어떤 특정한 문화 도깨비를 박멸하기 위해서 뛰어난 특수기동대가 아니다. 이 책은 로마 사회 전체의 길이와 폭을 다 아우르는 경찰 전체의 감시망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이전까지 그 누구도 이런 작업을 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아우구스티누스 연구자 찰스 매튜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도성은 특정 사회 환경 속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성찰하지 않는 현실을 대상으로 누군가 오늘날 비판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포괄적인 모든 사회이론과 비판이론의 뿌리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 3. 성경 전체를 다루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 몇 구절과 애용하는 기독교 교리 몇 가지를 가지고 로마 문화를 다루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성

11-20권에서 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개관한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로마가 가진 각종 해괴망측한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지 보여준다.

성경은 문화적 범주에 끼여들지 않고 성경만의 방식으로, 성경만의 강조점을 제시하며 독창성 있게 스스로를 제시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접근 방식은 일부 현대 페러다임과는 달리 창조, 죄, 심지어 구속에 관한 것도 아니다. 그의 문화 비평은 일관되게 성경적 균형을 유지한다.

### 4. 표면 아래를 살펴보자

아우구스티누스의 문화 비평은 전혀 알팍하지 않다. 그는 문화가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분석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히기 위해 지각관을 파헤친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구조 분석의 핵심은 사랑이다. 두 도시가 두 가지 사랑으로 만들어

졌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실제로 사랑은 사랑보다 더 깊다. 그는 이렇게 썼다. "영혼을 움직이는 건 사랑이고, 몸을 움직이는 건 무게이다." 문화 사상과 행동 또는 태도를 접할 때 그의 반사적인 반응은 "이것이 드러내는 건 어떤 사랑인가?"라는 질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문화를 고찰할 때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예리한 질문이다!

5. 대립과 성취 사이의 잘못된 선택을 거부하라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도시 사이의 대립만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가 지상 도시의 가장 깊은 갈망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만 보는, 쌍둥이처럼 닮은 두 가지 함정을 피한다. 더불어 대립과 성취 차이를 애매하게 가로지르는 미지근한 타협도 피한다.

그의 독특한 전략은 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놀랍도록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

님의 도성이다..." "영광"은 로마를 특징짓는 가치였다. 로마가 적을 어떻게 정복하고 멸망시켰는지를 보면 로마의 영광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로마의 영광은 결코 기독교의 미덕이 아니었다.

만약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오늘날 책을 쓴다면, 그 책은 현대인에게 가장 감각적으로 다가갈 단어를 써서 이런 식으로 시작할 것이다.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해방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나의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깨어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언어는 선을 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 당신은 지금 현대 문화의 상징인 Kool-Aid를 마신 거요 [Drink the Kool-Aid: 무언가를 심각할 정도로 믿는다는 뜻의 은어 '관주'].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불필요하게 도발적이고 잠재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로마인과 어울리다가 같이 망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탈출하세요!"

(6면으로 계속)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남침례교, 리버티 대학교 교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 대한 5가지 흥미로운 사실들 - 상 -

2023년 10월 25일, 루이지애나주의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LA-04-공화당) 하원의원이 미연방 하원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존슨 의장은 2016년부터 루이지애나주의 하원의원으로서 북서부와 서부 지역을 대표해 오고 있습니다.

존슨은, 2016년에 루이지애나 주에서 하원으로 뽑혔던 사람으로, 이번 하원의장으로 뽑히기까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220대 209의 투표를 통해 56대 하원의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미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응답 이라고밖에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그 당시에도, 지금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존슨은 하원의장직에 오른 이후 종교적 견해와 변호사로서의 과거 경력으로 인해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존슨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룹은 흑백처럼 선명하게 갈리워지는 5가지 이유를 나눕니다.

1. 그는 평범하고 신실한 성도.

침례교 언론(Baptist Press-BP)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은 남침례교 협약(Southern Baptist Convention-SBC)의 회원이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남침례교회의 윤리 및 종교 자유 위원회(SBC's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의 이사(Trustee)를 역임했습니다.

존슨이 소속된 루이지애나주 벤턴의 사이프러스 침례교회를 이끄는 존 프림(Rev. John Fream) 목사는 BP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는 완전 '찐'이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그의 가족 전체에 미치고 있다 Mike is the real deal, and God's hand is all over him and his family!" 라고 말하며, 덧붙여서 말하길,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게 되어 매우 흥분되고 희망적입니다. 마이크는 교회, 국가, 가족, 주님을 사랑합니다. I am so excited and hopeful for our nation with this great man of God leading. Mike loves his church, his country, his family and his Lord," 라고 말했습니다.

2. 캔터키주에 세워진 진짜 싸이즈의 노아방주와 창조과학 박물관과의

인연

마이크 존슨은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기 전, 한때 '젊은 지구 창조론' 자단체인 Answer in Genesis(창세기에서 답을 얻는다-창세기 답변)를 대표하는 변호사로 Ark Encounter (노아방주) 및 창조 과학 박물관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을 주었던 변호사입니다.

노아방주와 창조과학 박물관이 설립되면서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 지역에 이런 성경적인 종교단체가 세워지는 것을 격렬히 반대하는 소수의 세력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캔터키 주지사 스티브 베셔(Steve Beshear-민주당)의 행정부가 2014년에 박물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철회하는 차별을 했었습니다.

존슨은 2014년 8월에 발표한 의견서에서 "노아방주 인카운터가 지역에 미치는 엄청난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가로 연방정부가 세금 환급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설립 조항의 안전장치를 완전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캔터키 관리들은 노아방주와 이 창조과학박물관 및 공원을 찾는 인종, 피부색, 종교, 신념을 뛰어넘은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였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세속주의자들이 그들의 주장대로 수정헌법 1조를 진정으로 지지한다면, 그들은 이 시민 담론과 엄청난 경제 발전을 없애기보다는 환영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방주 프로젝트가 항해를 시작하면 이 프로젝트를 고집스럽게 침몰 시키려는 사람들에게 까지도, 이 지역에 사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의 변호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 미국 지방법원 판사 그레고리 반 타텐호브는 '창세기의 답변-Answers in Genesis'의 손을 들어주며 주 정부가 기독교 단체라는 이유로 정치적 차별을 받게되는 것을 법적으로 허락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기독교 학교 - Liberty University

마이크 존슨은 변호사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 외에도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대학교의 헬름스 행정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대

학교의 설립자인 고 제리 팔웰(Jerry Falwell Sr.) 목사의 아들인 조나단 팔웰 리버티대학교 총장 겸 캠퍼스 목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축하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훌륭하고 경건한 분이 제56대 하원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상 생활과 의사 결정에서 기독교 신앙과 가족을 우선시하는 그의 평판은 존경할 만하고 현명합니다."라고 조나단 팔웰은 말했습니다.

"존슨 의장이 국회의사당에서 직면해야 할 즉각적인 도전과 부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리버티 가족 전체가 존슨 의장과 워싱턴 DC를 이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성경적 보수 법률회사

마이크 존슨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 자유수호연맹(First Liberty Institute(FLI) and 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ADF), 등 여러 유명 보수 로펌에서 일했습니다.

2010년 ADF가 아직 자유수호연맹으로 알려졌을 때, 존슨은 연례 국가기도의 날(National Prayer Day)에 참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을 공무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 단체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당시 ADF의 수석 법률 고문을 맡고 있던 존슨은 2010년에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말했습니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공공 기도 활동에 참여했으며, 오늘날의 공무원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도의 날 행사는 모든 미국인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며 특정 종교나 종교적 관습을 조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행사는 합법적이고 적절합니다."

그는 또한, 1990년대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의 폴 M. 헤버트 법률 센터에 재학 중이던 존슨은 기독교 법률 협회(Christian Legal Society) 회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프리덤 가드(Freedom Guard-자유수호)라는 로펌을 설립했습니다.

더 자세한 나머지 내용은 TVNEXT.org 에서 보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0316@gmail.com

Q: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예수를 거의 안 믿고 있는데 잠자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 실비치 박 집사가

"바룩 하바 베셀 아도나이"

A: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의 지배하에 살다가 주후 70년에 디도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고 전 세계로 흩어져 고아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눅 21:24절의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1900년간 반 유대주의의 핍박 속에서 살다가 600만명이 독일 히틀러의 홀로코스트(Holocaust, 1933~1945)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저주의 피값을 치룬 것입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기적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 후 1967년 6월 전쟁에서 선제공격을 하여 예루살렘 도시를 비롯해 시리아의 골란 고원 이집트로 부터 가지지를 탈환하여 완전한 영토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영적회복입니다. 그들이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구원의 복음을 가장 거부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민족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선교해야 할 복음의 땅끝이요 라스트 프론티어(Last Frontier)인 셈입니다.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1500만명이 살고 있는데 미국에 600만명이 살고 성지에 650만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나머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성지 유대인들은 650만 명 중에 현재 몇 만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겨우 1%가 크리스천이요 90%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유대인들은 위대한 왕 메시아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에서 볼 때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함을 몰랐고 메시아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의 형벌을 받은 영적 메시아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강박한 것입니다. 2) 그들이 믿지 않자 하나님의 섭리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롬 11:25절 하나님이 작정한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가 차면 제일 마지막에 유대민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곧 머잖아 지금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비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회개하면서 하늘을 향해 애통하면서 "바룩 하바 베셀 아도나이"(נוֹדָא מִשְׁבַּח אֱבָרָה דְּיִשְׂרָאֵ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메시아)여")하며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마지막에 믿을 미전도 종족, 즉 라스트 프론티어(Last Frontier)가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들이 현재 하마스와 힘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말의 시간표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예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있습니다. 정통 유대 민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유대 군인들에게 또한 성령이 부어져 예수님 고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현재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2가지 복 평안(Peace)과 흥통(secure)을 약속합니다.(시 122:6)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7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대추와 단감, 또 팡퐁

아들과 태권도수업을 마치고 오는 남편 손에 쇼핑백이 들려 있다. 태권도장이 쇼핑백에 있어서 가끔 갑자기 필요한 아이들 간식이나 간단한 장을 몰래 있는 식품점에서 볼 때도 있지만, 특별히 부탁한 게 없어서 남편이 필요한 물건을 사왔나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니, 사법님이 대추를 주셔서 가져왔네." 하며 봉투에서 큰

지퍼백에 들쭉 담은 알이 굵은 대추를 꺼내 식탁위에 올려놓는다. 과실이 크고 빨갭게 잘 익어서 보기만 해도 정말 탐스러운 대추였다. 사법님 부모님 덕에 대추나무가 있는데 올해 과실이 좋아 함께 나눈다고 하시며 주셨다고 한다. "감사해라! 너무 귀한 걸 주셨네요." 하고 바로 씻어서 가족들과 한 입 베어 무는데 어린 시절 대추나

무에서 갓 따서 먹던 달큰하고 씹썩썩한 맛이 난다. 한인 1.5 세 사법님이 운영하시는 태권도장에 한인 학생도 많지 않고 수업이 끝나면 늘 분주해서 때로는 인사도 못 드리고 아이만 픽업해서 올 때도 있는데 감사하게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대추를 나누어 주신 마음이 참 따뜻하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직장에 나가는 부모님과 일찍 데이케어에 오는 학생들은 이른 아침 공기가 더욱 차게 느껴지는 11월이다. 특별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Dean은 코로나가 끝나도 항상 마스크를 하고 생활하는 4살 친구이다. 2살 여동생과 다른 친구들보다 30분정도 일찍 등원하여 하루를 먼저 시작하는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랑스런 아이이다. 씩씩하게 엄마와 인사를 한 후 동생 손을 잡고 들어오며 나에게 "This is for you. Ms. Hannah" 하며 단감을 건넨다. 아이 작은 손을 꼭 채

우고도 남을 정도로 커다랗고 예쁜 단감이다. "Oh, Thank you so much Dean"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니, 어머니께서 Dean 할아버지 덕에 감사하게 있는데 많이 주셔서 프레스쿨 선생님들께 나누고 싶어서 갖고 오셨고, 아이가 해나 선생님과 함께 준다고 하여 손에 들고 왔다고 한다. 어머니께도 한번 더 감사하다고 인사를 나눈다. 또렷한 초록색 모양의 꼭지까지 달린 주황색의 많은 사랑이 가득 담긴 감이 먹기에 아까울 정도로 귀하다. 단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집에 오니 하고 후 집에 먼저 온 아이들이 뛰냐고 물어본다. 학부형이 주신 단감이라고 얘기하며 꺼내 놓으니, 딸아이가 "어제는 대추, 오늘은 단감이네"하며 웃는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하며 냉장고를 열고 대추 옆에 단감을 넣었다.

오랜 시간 이곳 노던 버지니아

에서 교육사업에 힘쓰신 원장님 부부는 함께 겪어보니 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도 사모인 내가 배울 점이 많아 새로운 직장의 어려움보다 감사한 마음이 크다. 특별히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금요일에는 미국프리스쿨에서 한국어 수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다. 원장님 부부의 모든 전문지식과 열정 그리고 사랑을 아낌없이 아이들에게 넘칠 정도로 쏟아 붓고 있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니, 이곳 필그림 크리스천데이케어 왜 좋은 소문이 많이 나왔는지 알게 되었다. VA KADPA(버지니아 한미 장애인협회)회장으로 섬기는 원장님이 2024년 6월 메릴랜드에서 열리는 제2회 전미주장애 인체전 기금모금을 위해 버지니아 노퍽 농장에서 직송한 팡퐁을 판매한다는 공지를 올려 주셨다. 그동안 많은 가을열매

와 사랑을 받기만 했던 나는 드디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쁜 마음으로 구매했고 <도전속에 싹트는 희망>슬로건이 쓰인 팡퐁이 가득 담긴 선물하기에도 예쁜 팡퐁백을 받았다. 비록 우리 집에 과실나무는 없지만 나도 이 백을 통해 이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팡퐁 백 다섯 개를 담은 무거운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외한 개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으니, 뭐 맛있는 간식인가? 하는 기대로 부엌에 온 아이들이 "대추와 단감, 또 팡퐁!"하며 웃고 지나간다.

첫 추수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풍성한 식탁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필그림의 은혜가 2023년 추수감사절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소망한다.

Happy Thanksgiving!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일본 통일교, 고액 현금 '전격' 사과...속내는 재판?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 고액 현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전 신도들에게 공식 사죄했다. 해산명령을 청구한 정부와의 법적 다툼을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다나카 도미히로 통일교 일본교회 회장은 7일 도쿄도 시부야구 교단 본부에서 옛 신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을 청구받은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다. 통일교는 '고액 현금' '영감상법(영적인 이유를 대며 신도들에게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파는 행위)' 등의 문제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다나카 회장은 "가정 사정과 경제적 상황에 대한 법인의 지도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괴로운 생각을 한 모든 분께 솔직히 사과한다"며 통일교 신도 2세들에게도 용서를 구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이 모친의 통일교 헌금을 범행 동기로 밝힌 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액 현금에 대한 사과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며 사죄라는 표현은 아꼈다.

통일교 측은 '공탁금' 카드도 꺼냈다. 다나카 회장은 "현행법엔 없는 자금 공탁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피해 배상 자금으로 최대 100억엔(약 870억원)을 정부에 공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해산명령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자금을 해외로 보내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전례 없는 행보에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통일교의 이번 공탁금은 사법부로부터 더욱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일종의 안전장치"라며 "통일교 주요 자금 출처인 일본 통일교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교 측은 해산명령엔 불복하는 분위기다. 다나카 회장은 "종교를 믿을 자유와 법의 지배 관점에서 (해산명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다"고 주장했다.

美 대학 반유대·이슬람 확산...캠퍼스사역단체 중재 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미국 대학가에 반유대·이슬람 정서가 급속히 퍼지자 '평화의 중재자'로 캠퍼스사역단체가 나섰다.



미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는 최근 '캠퍼스 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캠퍼스사역단체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코넬대 등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유대인과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늘면서 이에 두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학내 기독교단체가 나섰다

지난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미국 내 반유대주의 범지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엔 코넬대의 유대인 학생을 총으로 공격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유대인 학생식당이 일시 폐쇄됐다. 컬럼비아대에선 한 유대인 학생이 폭행을 당했고, 펜실베이니아대에선 반유대주의 메시지가 담긴 낙서도 발견됐다. 혐오범죄의 희생양이 된 건 무슬림 학생도 마찬가지다. 스탠퍼드대에선 3일 한 아랍계 무슬림 학생이 백인 남성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은 뒤 차에 치인 사건이 발생했다.

학내 혐오범죄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캠퍼스사역단체는 유대인과 무슬림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IVF는 일부 대학에 유대인과 무슬림을 위한 소그룹을 개설했다. 두 그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의 친구가 돼주기 위해서다. 각 그룹의 이야기를 들은 뒤엔 이들의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IVF 대표로 캘리포니아 폴리텍 주립대에서 사역 중인 폴 차 목사는 최근 학내 유대인 소그룹에 참석했다. 차 목사는 "유대인 학생 대부분은 혐오범죄 증가세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한 학생은 '홀로코스트가 다시 일어날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선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랍계 무슬림 학생 역시 혐오범죄에 대한 염려를 전했다. 한편으로 가자지구 참상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을 한목소리로 묻기도 했다. 차 목사는 "무슬림 학생은 가자지구의 순전한 사망자 수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책임) 인정을 듣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차 목사는 여러 캠퍼스선교단체가 두 그룹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유대인과 무슬림을 위한 기독교단체의 소그룹은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는 법, 상처받은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익힐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려진 기독교인 박해 사례... '특별우려국 지정예달라'

세계 곳곳에서 2억명 넘는 기독교인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독교 박해국 명단엔 북한과 아제르바이잔이 추가됐다.



7일 기독교 박해감시 단체인 미 국제기독교연대(ICC) '올해의 기독교 박해 세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아제르바이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이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알제리 에리트레아 등이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5명은 '올해의 박해자'로 선정됐다. 단체 측은 2021년부터 연례 보고서를 통해 기독교 박해 세력을 알리고 있다. 북한 아제르바이잔 등은 보고서 발간 2년 만에 처음으로 기독교 박해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ICC는 박해받는 북한 기독교인을 40만 명으로 추정했다. 단체는 "올해 2살 아이의 부모는 집에서 성경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며 "북한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할 정도로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정권은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기독교인을 지속적으로 박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수 자원을 봉쇄하고 교회 출석을 제한하는 등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민을 탄압한 아제르바이잔 역시 기독교 박해국에 선정됐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민 가운데 94% 이상은 아르메니아 정교회 기독교인이며,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 국가다. 역사적 기독교 유적지나 교회

기념물 등을 파괴하며 지속적으로 아르메니아 문화와 기독교를 제거하려는 행태도 지적됐다. ICC는 아르메니아 민족 난민을 지원하고 미 특별우려국에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하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제프 킴 ICC 회장은 "종교 박해 사례는 대개 숨겨져 있다"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타인을 핍박하는 세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독교 박해국에 우린 더 많이 항의해야 한다"며 연대를 요청했다.

"가자지구는 아이들 무덤이 됐다" ...UN 사무총장의 절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가자지구가 어린이의 무덤이 되고 있다"며 휴전을 촉구했다.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가자지구 보건 당국이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자 이날 가자지구가 어린이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1만22명이며 이 중 어린이가 4104명이다.

구테흐스 총장은 "가자지구는 매일 수백명의 소년과 소녀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잔인하고 끔찍한 고통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성명을 올려 "전쟁 중 평균적으로 10분에 한 명씩 어린이가 죽고, 두 명이 다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스라엘군(IDF)의 지상 작전과 계속되는 폭격으로 민간인, 병원, 난민 캠프, 이슬람 사원, 교회 등 유엔 시설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가자지구에서 UNRWA 직원도 89명이 사망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유엔 기구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 수치"라고 했다.

UNRWA에 따르면 가자지구 직원 사망자 규모는 단일 분쟁으로는 가장 많다고 한다. UNRWA 대변인은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동료 5명이 목숨을 잃었고, 직원 사망자는 실제로 더 많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대판 '하나님의 도성' 을 쓰고 싶을 것이다

(4면에서 계속)

그러나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영광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가 로마가 말하는 영광의 정의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가 말하는 영광은 자신을 높이고 노예를 거느리는 가이사의 영광이 아니다. 자신을 비우고 남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영광에 대한 호소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화려한 시발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을 로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영광을 가장 깊고 진실하게 실현하는 형태로서 설정한다. 그

러나 동시에 영광에 대한 로마의 이해는 한낱 뒤틀린 환상에 불과하며 로마 안에는 진짜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성은 성경의 패턴을 따른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미련함을 세상 지혜와 철저한 대조(20-23절)인 동시에 세상 지혜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완전한 성취(25, 30-31절)로 제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선포를 대조 또는 성취 중 어느 선택할 이유가 없다.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6. 교회와 문화의 복잡한 관

계를 이해하라

아우구스티누스가 주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의 도시와 지상의 도시가 현시대에는 서로 얽혀서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최종 심판의 날 완전히 분리될 운명이라는 사실이다. 지나치게 대조를 강조하는 문화 비평의 접근 방식은 두 도시를 완전히 별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문화가 형성하는 여러 방식에 무지하기 쉽다. 반대로 지나치게 성취를 강조하는 접근 방식은 두 도시를 근본 가치에서 동일한 대안의 표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복음 외에는 세상을 향해 어떤 것도 제대로 선포할 수 없

게 된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보여주는 성경의 틀은 우리가 굳이 감당하기 힘든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 시대에도 두 도시는 여전히 얽혀 있다. 세상 "문화"는 결코 문밖에서 서서 교회가 문을 열어주기만 암전히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좋은 삶은 세상 문화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형성한다. 동시에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진 두 도시의 운명은 후기 현대적 사고방식이 아무리 편안하게 느껴져더라도 이 세상은 결코 분할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비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행여라도 우리가 후기 현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

하나님의 도성 - 아우구스티누스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역사의 중심인물의 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도성은 가장 위대한 신학 저서 중 하나이다. 로마제국이 무너지기 직전에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쓴 이 책은 로마의 고대 이교, 그리스 철학자의 주장, 그리고 성경의 계시를 고찰한다. 로마라는 당시 세계 최고의 정치 경험을 뛰어넘어 영원히 지속될 시민주권을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도성은 기독교 발전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친 저작 중 하나이다.

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은 우리 시대에 성경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민감함을 잃지 않고 현대 문화 속에 참여하려는 그리스도인에게 청

사진을 제공한다. 지난 세월, 이 책이 가진 광채를 모방하려는 작가가 적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능가하지는 못했다.

by Chris Watkin, TGC

#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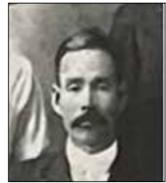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80. 양흥림 (1878-1952)

양흥림(梁興廉)은 1870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여덟 살 적은 과선일과 결혼하여 윤용, 현이 그리고 채용 등 세 자녀를 낳았다. 와하이에 온 후 부인 과선일이 수산나로 소개되었...

평생을 따라 와하이라와 기독교회에 출석하였을 것이다. 가정은 가정을 가진 자는 34세의 윤동천 가정 (33세의 부인 영구, 12세의 동오, 10세의 아령, 9세의 애니, 4세의 다니엘, 3세의 덕환, 1세의 엘렌, 그리고 62세의 과부 어머니 마리아), 46세의 이만기 가정 (48세의 부인 박수은, 11세의 매리와 8세의 룻), 48세의 이맹숙 가정 (31세의 부인 김록, 2세의 태음), 48세의 이범수 가정 (40세의 부인 이위분, 15세의 흥근, 13세의 호순, 10세의 현준, 8세의 순분, 5세의 히분, 3세의 손분, 9개월의 구분), 52세의 정도원 가정 (33세의 부인 정사원, 12세의 일흥, 11세의 문홍, 7세의 애섬, 6세의 지흥, 5세의 인섬, 2세의 진흥), 35세의 신필립 가정 (26세의 부인 신년시, 9세의 룻, 8세의 이테르, 5세의 매리, 4세의 데이빗, 3세의 벨리, 1세의 대이시), 74세의 배근원 가정 (54세의 여동생 주애니, 17세의 질녀 주 다이아나, 5세의 조카 주조), 47세의 송숙순 가정 (34세의 부인 북필준, 9세의 하순, 7세의 조지, 5세의 성근, 2세의 성문, 9개월의 수잔), 53세의 문형식 가정 (33세의 부인 김매순, 9세의 옥경, 7세의 경민, 5세의 경조, 4세의 경원), 51세의 손진수 가정 (38세의 부인 손호순, 15세의 세실리아, 13세의 베티, 12세의 엘리사, 10세의 엘레트, 9세의 귀봉, 8세의 왈탐), 37세의 문토마스 가정 (28세의 부인 젤리아마), 49세의 선윤선 가정 (39세의 부인 이기남, 10세의 간순, 8세의 은풍, 6세의 경희, 3세의 경은), 47세의 김누형 가정 (50세의 부인 김옥김), 43세의 김명식 가정 (28세의 부인 김마가렛, 9세의 엘리자, 8세의 새라, 5세의 제이슨, 3세의 이피), 42세의 유진감 가정 (32세의 부인 이복순, 13세의 윤준, 11세의 도라, 9세의 새라, 7세의 윌라, 5세의 지준, 3세의 인준, 2세의 경준, 15세의 질녀 매리,



와하이라와 한인기독교회 (1930년대)

의 영현, 4세의 순현, 2세의 순동), 47세의 홀아비 문정현 가정 (14세의 덕만, 12세의 덕성, 10세의 덕순, 8세의 덕영, 69세의 어머니 길순) 등이 있었다.

독신이거나 홀아비였던 자 중에는 49세의 손오삼, 45세의 강보조, 59세의 김치구, 48세의 장근순, 43세의 장호리, 48세의 안봉호, 44세의 유지살, 54세의 시흥식, 45세의 신라문, 49세의 김창훈, 49세의 김기호, 54세의 박천선, 68세의 장익성, 52세의 최장영, 44세의 안창호, 4세의 장만권, 67세의 김명준 등이 있었다.

그해 주수감사절은 와하이라와에 있는 기독교회와 한인기독교회가 연합하여 드러졌다. 신한민보는 '와하이라와 두 교회에서는 감사절 밤에 아름다운 순서로써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이 경절을 엄숙히 지켰다더라'라고 보도했다. 그해 11월 26일 저녁에 와하이라와 기독교회는 양재용 학사를 맞이하여 환영하는 모임을 했다. 양흥림의 차남인 그는 미국 본토에서 중학교를 공부하였는데 그날 그의 학업 성취를 축하하였다.

다음 달인 12월에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는 위태할 지경에 있었는데 양재용이 목회하는 와하이라와 기독교회는 전보다 더 확장된 모양이었다. 최근에 만찬호, 최창덕 그리고 홍치범 등 세 목사가 그 지방으로 가서 목회를 찬조한 결실이었다. 그달에 와하이라와 한인사회에 풍파가 있었는데 와하이라와에 거주하는 동포는 중립을 취하였다. 양흥림 등 이 지방 인도자들은 싸움을 말리나고 각 방면으로 운동하였고, 여러 차례 모여 의결한 결과 대표를 뽑아 동지회와 민단에 파송하였다. 그러나 아직 효과는 없었다.

오아우 섬 각 교회는 그해 성탄절을 위하여 굉장한 순서를 예비하였다. 아직 완전한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와하이라와 지방에서는 24일 저녁에 가진다고 하였는데 와하이라와 기독교회는 20일 저녁으로 계획하였다고 전해졌다.

1935년 1월 7일부터 3일간 와하이라와 한인기독교회 제15주년 연회가 호놀룰루 스톤 스트리트에 있는 한인기독교회당에서 있었다. 양흥림은 박동완과 함께 와하이라와 기독교회 대표로 참석하였다. 기타 참석자로는 호향 대표 김흥식, 이종관, 조석진, 안현경, 박주범, 정운서, 힐로 대표 장 봉, 코나 대표 김순성 그리고 마위 피아아 대표 이은구였다. 먼저 박동완이 30분간 기도를 인도하였고, 이어서 3년 연회 회장이었던 최선주가 회의를 선언한

후 각 지역 대표의 대표증을 조사하여 접수하였다. 호향 교회 신임 목사 김형식을 회중에 소개한 다음에 연회를 조직하였는데 양흥림은 조석진과 함께 후보자 전형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기타 임원으로는 회장은 김형식, 부회장은 정운서, 서기는 박주범, 규칙 위원은 박동환과 김형식, 통계표 위원은 조석진, 성만찬 위원은 김형식, 순서 위원은 박동환 그리고 재정위원은 이은구와 안현경으로 선정하였다.

힐로 한인 기독교회 장 봉과 대표가 미처 출석하지 못하여서 6일까지 정회하였다가 7일 하오 7시에 속계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다. 작년에 행한 사업 가운데 기독교회의 다년 헌안인 교회 헌장과 성례문을 제정하였고, 교회 보물 2호까지 발행하였으며, 캠프룩과 옥칼나 등 두 곳에 새로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내지 선교사업으로 이준원 목사에게 1,282달러를 후원하여 인천 흥산동 인근에 있는 19개 교회의 708명의 교인을 섬기게 하였다.



오늘날의 와하이라와 한인기독교회



이날 각 교회 담임자의 보고가 있었는데 교회마다 곤란한 것도 없지 않았 거니와 특별할 만한 일도 적지 않았다. 호향 교회가 김형식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고,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힐로 교회가 예배당 내지 비용으로 3,000여 달러를 확보하였는데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장 목사와 고우들이 활동하였으며 외국 친구들이 사랑스럽게 도움을 준 까닭이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게 치하할 바였다. 그리고 이은구의 마위 피아아 기독교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참석할 회원과 방청객 여러분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날 회장 김형식 목사가 사회한 가운데 와하이라와 기독교회 담임 목사인 박동완이 이사부장으로 선임하였다.

1935년에 부인이 소천한 후 양흥림은 딸 엘시 가정에서 거주했다. 딸 부부는 세탁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9세의 손자 보비스와 6세의 손녀 마거릿을 돌보았다. 양흥림은 1964년에 향년 9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부인 과수산나와 안장된 호놀룰루에 있는 오아후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 와하이라와 기독교회

양흥림은 전도사로서 와하이라와 기독교회를 섬긴 것 같다. 본 교회 담임목사는 1928년에 본 교회에 부임한 삼일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한 사람인 42세의 박동완이었다.

1930년에 양흥림은 와하이라와 파인애플 농장에서 한인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교회를 섬긴 자비량 전도인이었다. 그의 부인 수산나는 자기 집에서 양복장이로 활동했다. 그 해 연방정부가 실시한 인구조사에 다수의 한인들을 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박동완의

양흥림은 전도사로서 와하이라와 기독교회를 섬긴 것 같다. 본 교회 담임목사는 1928년에 본 교회에 부임한 삼일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한 사람인 42세의 박동완이었다.

1930년에 양흥림은 와하이라와 파인애플 농장에서 한인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교회를 섬긴 자비량 전도인이었다. 그의 부인 수산나는 자기 집에서 양복장이로 활동했다. 그 해 연방정부가 실시한 인구조사에 다수의 한인들을 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박동완의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3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 8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 481-2779,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 오후 1:20 영아교 (영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명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ca.org 170 Blinn Pl., Los Angeles, CA 90004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626)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www.bethelc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세계사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 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세계선교회</b>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7:00(주말)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10) 388-1927, www.wmcc.org, www.worldmissioncenter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b>살비치 사랑교회</b> (Seaf Beach Se-Lov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살비치 리저널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F)	<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오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목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b>엘피스지역원</b> 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선교회연합회총무)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평신도 여성지도자 사역: 1. 복음화 2. 가정사역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 Tel: (213) 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은혜영안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영아예배: 오후 1:30(수요일예배: 오후 7:30) 안락예배: 오후 7:30, 9:15, 11:30 Tel: (714) 446-6202, www.grocc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목/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아예배(영인/영년): 오전 11:45 송-고교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464-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목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encec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히비스산교회</b>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영성경이 임하지"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명상기도의 형식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간단한 질문

제 6장 올바른 기도의 방법 (1)

성령은 신자들의 지성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 곧 기도의 내용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며, 그들의 의지와 감정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열망하도록 하신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올바른 방법이 있다. 지성은 기도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는 빛을 가지지만, 의지와 감정은 이런 일에 죽어 있으며 관여조차 할 수 없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에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전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행위이다.

1. 성령께서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서 사역을 완성하려 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에는 특별히 강하게 짓누르는 마음에 중압감으로 탄식하는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과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의 부단은 신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의지와 감정을 움직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자연적인 감정으로는 결코 도달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헬, 휘페렌팅카네이)"(롬 8:26)라고 말하고 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뜻을 가진 헬리어 '쉬날나랍베네타이'를 사용하였다. 이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가 일할 때 도와주시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의미이다. 본문에서는 중보자로서 스스로 간구할 수 없는 자를 대신해서 간구한다는 의미를 가진 '휘페렌팅카네이'를 사용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도록 하신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가 '탄식한다'고 곧 겸손히, 슬프게, 간절히 열망한다고 말하고 있다(롬 8:23). 그리고 그는 또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셔서 우리가 간절하고 애타게 우리의 기도해야 할 것을 구하도록 하신다.

2. 성령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에 세밀하게 관여하신다

성령은 참으로 우리의 온 영혼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영적인 것들의 진실과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로 하여금 지성으로 이해한 것을 선택하고 사랑하게 하신다. 또한 우리의 감정으로 하여금 지성이 알고 의지가 받아들인 것을 즐거워하고 열망하도록 하신다.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효력으로 실질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성취되기를 원하는 간절하면서도 거룩하고 초자연적인 열망을 갖도록 하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말로 겸손히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난이 교회와 신자들에게 빠짐없이 적용되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현재 누리는 영광스러운 상태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로마서에서 사도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15)라고 말하며,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복된 사역에 대해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도 말하고 있다. 그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롬 8:23) 스스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고 말하고 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헬리어 "안핑카네이"를 사용하는 반면에, 본문의 성령에 관해서는 "휘페렌팅카네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에 어떤 것을 더해 주심을 내포한다. 주님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은 자신 안에서 언제나 완벽하게 활동하는 은혜를 더욱더 고양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신의 영혼의 기능들을 더욱더 힘 있게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특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성령의 동일한 도우심과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사모해야 한다.

3. 성령은 신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심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데 필요한 믿음, 사랑, 존경, 두려움, 신뢰, 복종, 기대, 희망 등과 같은 은혜를 불러 일으키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냐하면 기쁨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주시지 않을 뿐 더러, 메마르고, 짐스러운 일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이다. 사도는 기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기도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짖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거룩한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들에 대해 갖는 것과 같은 즐거움이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할 즐거움에는 어떤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가?

1)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는 육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는데(히 11:27), 이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 11:1), 곧 어떤 대상을 믿는 자들로 분명히 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혜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를 즐거워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이시다(히 4:16).

더 나아가 이런 은혜의 보좌는 그것이 세워져 있는 장소로 인하여 더 큰 의미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거룩한 곳, 곧 지성소이다.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담담하게 그분이 계신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다(히 10:19). 그러므로 보좌 위에 앉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구하는 죄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분의 보좌는 다르게 표현이 된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볼 때, 어리석게 그것을 피하려는 생각과 더불어 그들 안에 두려움과 공포만 자라날 뿐이다(사 33:14, 미 6:6-7, 계 6:16,17).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의 이름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만족할 뿐,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게 자비를 보여 주시기 위해 높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사 30:18). 이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으며, 기쁨으로 그분을 부를 수 없고,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도 없다. 우리가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주어진 계시로부터 온다. 골로새서 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 안에 분노가 없으시다는 것과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 자기 팔을 잡으면 화평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yoonsuklee@hotmail.com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의 전략, 좋아성

유튜브에서 우연히 남성 듀엣의 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멜로디가 감미로우나 가사는 너무나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너희 자녀들을 바꿔놓을 거야. We'll convert your children"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가사를 살펴볼까요? "우리는 너희 자녀들을 바꿔놓을 거야. 조금씩 조금씩, 조용하고 은밀하게!"

아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할 거야. 너희(부모)들이 그들(자녀)을 디스코장에 가지 않게 할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동성애의 본고장)에 대해 경고를 할 수는 있겠지. 그들에게 주름이 잘 잡힌 바지를 입게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쯤은 신경도 안 써. 우리는 너희 자녀들을 바꿔놓을 거야. 우리는 너희 자녀들이 (동성애에 대해) 수용하고 공정하게 대하도록 만들 거야."

다음 세대를 향한 무서운 전략이 담긴 노래입니다. 성경적 성 가치관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문화적 접근을 통해 가치관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문화란 인간의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성'의 개념을 변화시킴으로 우리 삶의 근본을 뒤바꾸며 흔들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태도와 행태를 '섹슈얼리티(sexuality)'라는 단지 '문화'일 뿐이라고 규정하면서 조용한 혁명으로 그동안 애써 지켜온 문화와 예술, 교육과 정치, 과학의 분야까지 인류의 놀라운 유산을 송두리째 삼키려 합니다.

이제 우리도 깨어 있는 부모와 교사로서 혁명을 시작할 때입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다음 세대의 생명을 위해 부모와 교사가, 학교와 교회가, 정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가 힘을 합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전략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지금부터 펼쳐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5~18세 교육 현장에 은밀하게 침투해 반성경적 언어와 개념을 '성교육' 커리큘럼으로 글로벌하게 가르쳐 온 전략을, 이제 막아서도록 성경적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교육의 전략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필자는 이를 위해 '좋아성(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교육을 체계화했습니다.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영숙, 2005)입니다.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야말로 곧 문화입니다.

각 나라, 가정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듯 성품과 문화는 형성되는 원리가 같습니다. 삶을 결정하는 세계관, 가치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동일합니다. 문화에 따른 자신의 해석 체계에 따라 정서의 체험 조건, 체험되는 정서의 종류, 빈도와 강도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Markus & Kitayama, 1991).

믿음의 부모는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의 기둥을 세우도록 어릴 때부터 성경을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좋은 성품'은 바로 성경에서 찾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좋은 성품'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이유이지요. 세상을 만든 신, 성을 시작하신 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따라 다음 세대가 성(性)을 이해하고 성(性)을 사용하고 성(性)을 기뻐하는 세상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좋아성' 문화가 확산되어,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생명의 바다가 글로벌하게 퍼지는 소망을 다시금 품어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방을 향해 물결치도록 우리 함께 '좋아성'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갑시다.

다음 세대 성품교육과 좋아성(BSE)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시니어 목회를 위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 goodtreeusa@gmail.com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Includes sections for NY/NJ, Hawaii, and Toronto areas with church names, pastors, and contact info.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가을에 빛나는 사랑

가을이 되면 누구나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되고 명상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는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 하게 하소서/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가을에는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됨으로 가을의 기도는 응답이 더욱 빠를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저절로 나아가는 마음은 사랑이 담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인생의 본질입니다/사랑은 행복의 본질입니다/사랑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는 매우 귀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이미지가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문을 열기도 하고 닫히게도 하기 때문에 그 상징의 표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마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누구나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도 만나지만 고통의 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인은 묵묵히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고통들을 감당하고 전진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로 삶의 희로애락을 풀어나가는 모습이

교인들의 트레이드마크 일 것입니다. 그것은 화목입니다. 화목은 행복의 심리적 상태를 증거하며 동시에 관계적 행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잘 싸우는 사람은 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모습이 교인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마5:9). 그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의 표상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겸손 하셨습니다

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겸손한 모습으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교인은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마11:29)고 교육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김현승님은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눅6:27)고 하십니다. 사랑은 교인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아름답고 달콤하고 고상하지만 사랑의 실체는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들 합니다. 사랑이 없

으면 눈물도 아름답고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잠 못 이루고 한숨을 짓고 방향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나는 사랑을 알겠어요"라고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이 되기도 하기 때문 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고 인생의 본질이 사랑이며 성경적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에는 많이 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랑에 풍요로운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cyd777@hotmail.com



KAAG, 가을연주회 열어

"부른다 공화국,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 위해"

한미오도하프협회(KAAG) 가을 정기 연주회가 지난 10월 28일(토) 산타클라라 연합칼리 교회에서 개최됐다. KAAG의 가을 정기 연주회는 2022년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로 1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는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인 부룬디 공화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열렸

다. 이번 가을 정기 연주회에서는 한국 동요와 가곡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염원으로 실리콘밸리 지역 단원을 비롯해 LA, 메릴랜드, 버지니아의 단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김일현 무용가의 현대무용과 산호세 임마누엘교회의 Hop to God 팀이 참여해 아름다운 가곡과 동요로 관객과 함께하는 연주회 시간을 가졌다. 강영혜 회장

은 "올 연주회에서는 어린 시절 추억을 담은 동요와 한국인의 정서가 담기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적인 하늘의 소리인 가곡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엄영미, 강명진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는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LA의 푸르내담의 그리움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의 아어모(바위고개, 보리밭), LA의 Sunny Kim, 전종하 듀엣(남촌, 희망의 나라), 산호세 글로리아(이별의 노래, 오빠 생각, 섬집아기), 이일주(그리운 금강산), 하



KAAG 정기 연주회에서 아어모팀이 연주하고 있다.

프매니아(어린이시절, 난 아니야, 흥부와 놀부), 사랑(님이 오시는지, 반달, 선구자), 울림(별, 동요 메들리(파란마음 하얀마음, 풍당풍당, 고기잡이)), 고영옥(청

산에 살리라), Ray Choi, 고영옥(향수)의 연주로 이어졌다. KAAG는 지역 리더들이 팀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오도하프를 저변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KAAG 1회 정기 연주회에서 모 여진 10,600불의 기금은 우크라이나 어린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곳에 전달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무시하지 말라

(2면에서 계속)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옥의 교리를 포기한 선교사가 갑자기 더 자유로워지고 더 도덕적인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다. 교리의 상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더 제한된 신앙과 협소한 사역이다.

선교사의 확신

성경 속 지옥에 관한 가장 분명한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나온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관한 긴 설교를 한다. 물론 사역 내내 그의 가르침 대부분이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징벌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 장에서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울며 이를 갈며"(마 24:51; 25:30)라는 문구를 반복한 후, 그는 그러한 고통이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다. 의로운 "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나라로 맞아들일 것이며, 저주받은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마25:33, 41). 이런 심판의 범위를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그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마 25:46)라고 결론 내린다.

마태복음 25장이 그리는 지옥의 모습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지옥이라는 이 중요한 교리가 단지 한 장의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막 9:43)이며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 곳"(막 9:48)으로 묘사된 것을 본다. 누가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

한 예수의 비유를 인용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부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했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눅 16:23-24). 요한계시록은 또한 끝없는 고통의 연기가 나고 유향이 많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한다(계 9:1-2, 11; 14:9-11; 19:3; 21:8).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지옥에 관해서 성경은 그 어떤 여지도 주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다.

카운트다운을 향한 위로

지옥에 관한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선교사는 이 교리가 가진 진리뿐 아니라 그 선함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의식적으로 영원한 고통을 겪는다는 이 교리의 어떤 점이 좋을 수 있을까? 이 교리가 영혼의 교화에 도움을 주는가? 사역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

다음부터 밤에 통곡 소리가 들리거나 내레이터가 속삭일 때 이 교리가 주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유익을 기억하라.

30초 전...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대 민족 가운데 잃어버린 그의 친족을 생각하며 바울이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롬 9:2)라고 썼을 때, 그가 지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는 사실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지옥이 사실이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면, 그분의 자비에 대한 말씀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다.

성경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보다 선교사의 사역에 유익을 주는 게 또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고후 4:5).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기록된 말씀을 통한 살아 있는 말씀이다. 지옥의 집이 엄습할 때, 선교사는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벧후 3:9)라는 말씀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다.

25초 전...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지옥 교리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의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인간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영원한 심판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건가?

선교사는 웨인 그루템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처벌받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악을 징벌하시고 악을 이기실 때 그의 공의와 의와 모든 대적을 이기시는 능력의 영광이 나타난다."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겸손하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선교사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며 공의로우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최

고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듣는 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복음은 지옥 불의 위협에 처한 사람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20초 전... 지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키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에 대한 나의 확신은 선교 현장에서 탄생했다. 어느 날, 우리 팀장이 나를 산꼭대기의 탁 트인 전망 앞으로 데려갔다. 접근할 수 없는 마음이 수마일에 걸쳐 수천 개의 양철 지붕의 모습으로 반짝였다. 그날 밤, 나는 그만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살 뻔했다.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오로지 나의 힘에 달려 있었다면, 나는 절망에 빠져 그만두었을 것이다.

감사하게도 나는 당시 로마서를 읽고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혹히 여기시고 자 하는 사람을 공혹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롬 9:18)라는 바울의 선언을 접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혼의 선택이 나를 선교 현장에 머물게 한 위로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었다. 그 자유로움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안식을 준다.

15초 전... 지옥은 전도에 동기를 부여한다.

내가 말하는 안식은 전도 활동에서 한 발 떨어진 안식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안식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주는 힘으로 우리는 더욱더 노력한

다(히 4:11). 이것이 어찌면 지옥 교리가 주는 가장 분명한 이로움일 수도 있다. 지옥이 실재하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몇 초 후에 죽는다면, 선교사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바울의 긴박감을 들여보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롬 10:14-15) 이 얼마나 대단한 동기 부여인가!

10초 전... 지옥은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숨이 막히게 한다.

나는 목회자로서 누군가에게 지옥 교리를 목상하라고 권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지옥의 중요성과 분명히 일치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교리만은 깊이 성찰할 것을 촉구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 같이 하늘의 휘장이 열렸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여"(사 6:3, 계 4:8) 외치는 피조물을 묘사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오로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을 훼손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시는 하나님은 웅오시다. 의식적인 고통을 영원히 겪는 지옥을 항상 생각하는 선교사는 당연히 무서워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서(살후 1:9)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는 지옥에서(계 14:10) 영혼이 영원히 슬퍼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렇다. 지옥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높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척도일 수 있다. 사편 기자와 함께 선교사도 얼마든지 감동에 차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소리쳐야 한다(시 99:9).

5초 전...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한다.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은 힘들다. 수백만 명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음을 의미한다. 선교사가 인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것이다. 지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높이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또한 그분의 자비의 깊이에 대한 기념비도 제공한다.

감사는 어려운 시기에 위안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신다(요 15:11). 우리가 지옥(자비)을 피하고 영생(은혜)을 상속받도록, 실로 놀라운 사랑으로 선택되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가.

결국, 선교사 자신도 몇 초 후면 죽는다. 차가운 내레이터가 언제 내가 죽을지 내 귀에 속삭이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의 미래는 지옥이 아니다. 오직 천국만이 있고 그다음에는 새로운 창조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야말로 왕의 길이다.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by Bradley Bell, TGC

# 동부교계 기사판

## 뉴욕교협, 사랑의 터키 보내기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의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 나눔으로 “사랑의 터키 보내기”를 진행한다. “사랑의 터키 보내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11월 20일(월)까지 연락하면 된다. 터키 나눔은 11월 22일(수) 오전10시-12시에 열린다.

▲문의: 회장 박태규 목사 718-840-8931, 총무 양은식 목사 917-963-9779

## 뉴저지실버선교회, 2024 정기총회

뉴저지실버선교회(선교본부장 정동화)에서 2024년 정기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일시: 2023년 12월 3일(주일) 오후 6시 장소: 새언약교회(담임 김중국 목사) 대상: 실버선교회 회원 수료한 모든 회원

▲문의: 정동화 선교본부장 201-960-5539, 전경엽 총동창회장 201-294-4758

## 뉴욕교협, 제 50회기 시무 예배 및 이 취임식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 제 50회기 시무 예배 및 이 취임식을 11월18일(토) 오전 10시 프리미엄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개최한다.

▲문의: 총무 양은식 목사 917-963-9779, 교협 사무실 718-279-1414

## 퀸즈한인교회, 온 가족 뮤지컬 '년 특별하다'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온 가족 뮤지컬 '년 특별하다'를 11월18일(토) 오후 7시에 본교회에서 공연을 개최한다.

▲ 문의: 718-672-1150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장로 기도회 성료

<1면에서 계속>

우린 모여 전도 집회를 해야 한다. 미국이 선교지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 복음을 잃어버린 미국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면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와 마을에 함께 모여 전도 집회를 갖자. 그럴 때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복음의 진 빛을 갖는 하나의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복음을 위한 교단이 되기를 소원한다. 이 일이 어렵지 않기를 소원한다. KAPC여 일어나자!!”고 강권했다.

이날 허상희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교회여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는 주 제처럼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 바란다. 복음으로 내가 먼저 회복되어 잃었던 사명이, 능력이 회



왼쪽부터 박성일 목사, 양경선 목사, Paul Chi 목사

는 △ 'KAPC 산하 교회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다시 복음을 또 돌아가게 하옵소서' △ '총회 산하 650여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회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의 제목으로

전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둘째 날(화)은 오전 9시부터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박성일 목사(북미주동노회)가 'Post-Pandemic Church: 진단과 제안'으로, 양경선 목사(남가주) '영상 시대에 목회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IT 기능

중부)의 축도로 마쳤다.

셋째 날 역시 강의와 기도회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이동훈 목사(더비전교회, 록키마운틴노회)가 '은퇴를 앞둔 목사들과 젊은 목회자의 교회 합병 사례'에 관한 강의 한뒤 이성수 목사(수도)의 인도로 기도회로 이어졌다. 이날 기도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함으로 이민교회가 지속되게 하소서(기도자: 이택래 목사, 워싱턴)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과 지혜를 주소서(기도자: 박봉근 목사, 동남부)의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오후에는 살뜻으로 이동해 빌리그레함 라이브러리 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저녁 집회는 최해근 목사(필라)의 인도로 시작돼 기도 유향무 장로(동남부), 특송 이광희 선교사(필리핀), 성경봉독 김춘식 목사(동남부), 설교 송찬우 목사(전 총회장)로

# “우리는 복음에 빛진 자! 이 빛을 갠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집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복되고 이 기도회가 전도 집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철 목사(가주)의 인도로 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

뜨거운 함성으로 함께 기도한 뒤 김성일 목사(총무), 김관중 목사(남가주), 이동진 목사(남가주)가 각각 마무리 기도를 드렸다. 첫날 집회는 장용호 목사(가주)의 광고후 오세훈 목사

들, Paul Chi 목사 'PCA 제네바 연금과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어 정기태 목사(뉴욕)의 인도로 기도회를 갖고 △총회 산하 교회에 하나

를, Paul Chi 목사 'PCA 제네바 연금과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어 정기태 목사(뉴욕)의 인도로 기도회를 갖고 △총회 산하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소서(기도자: 손한권 목사, 뉴욕) △KAPC의 신학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으로 꽃이 피게 하소서(기도자: 장의환 목사, 뉴

이) △목사님들과 사모님, 장로님들이 교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주소서(기도자: 문덕연 목사, 뉴욕동)의 제목으로 기도한 후,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쳤다. 이날 오후 시간에는 노회별 족구대회와 사모들을 위한 피구대회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우승팀은 남가주/필라 연합 2조가 남·여 모두 1등을 차지했다.

이날 저녁 7시 박헌빈 목사(중부)의 인도로 시작된 둘째날 집회는 주양명 목사(필라) 기도, 사모합창단의 찬양과 우시창 목사(뉴잉) 성경봉독, 조성윤 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조성윤 목사(북미주동)는 'God as Entrepreneur, King ROI, and Church as Gospel Investment'(마 25:14-30)의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기도회는 권영국 목사(뉴욕남)의 인도로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 주셔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기도자: 서성호 목사, 중부)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지도자들을 준비하게 하소서(기도자: 홍성우 목사, 록키) △교회학교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기도자: 이영진 목사, 동남부)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한 뒤 홍귀표 목사(전총회장,

금번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치고 친교의 시간을 통해 교제의 폭도 넓히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기도회를 준비한 스태프들에게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자 기자)



Fall Family Festival에서 어린이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 퀸즈장로교회, 2023 Fall Family Festival 개최

할로윈 대신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황,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할로윈 데이였던 10월 31일(화) 오후 5시 30분 퀸즈장로교회 교육부(담임 차평화 목사)에서 준비한 Fall Family Festival을 개최했다. 비가 온 후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들과 자녀들뿐 만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저녁 7시부터는 예배를 위해 교회 본당으로 장소를 이동해 퀸즈장로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신나는 찬양과 바드워십을 진행했고, 이 오스틴 전 전도를 통해 초청했던 외부에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저녁 식사, 팝콘, 솜사탕, 캔디, 간식들과 함께 풍선, 머리핀, 목걸이 만들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바운스 하우스와 그 외 다양한 게임을 통해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퀸즈장로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성경 이야기들을 테마로 제작한 다양한 게임들을 통해 성경적 메시지를

이외부인들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저녁 7시부터는 예배를 위해 교회 본당으로 장소를 이동해 퀸즈장로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신나는 찬양과 바드워십을 진행했고, 이 오스틴 전 전도를 통해 초청했던 외부에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저녁 식사, 팝콘, 솜사탕, 캔디, 간식들과 함께 풍선, 머리핀, 목걸이 만들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바운스 하우스와 그 외 다양한 게임을 통해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퀸즈장로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성경 이야기들을 테마로 제작한 다양한 게임들을 통해 성경적 메시지를

(김재상 기자)



이용결 목사가 선물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넥타이를 착용하고 기념촬영 했다

# 뉴욕심포니교회, 교회이전 감사예배

'아름답고 아담한 찬송이 넘치는 교회'

뉴욕심포니교회(담임 신동기 목사) 교회이전 감사예배가 11월4일(토) 오전 11시 본교회에서 열렸다. 뉴욕심포니교회는 3년 전 집

에서 교회를 창립한 뒤, 여러 곳을 다니며 예배를 드려오다 2023년 10월29일 (42-70 156st) 현재의 장소에 '뉴욕심포니교회' 교회 간판을 세우고

단독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신동기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경배와 찬양 정인수 목사(뉴욕총은교회), 기도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헌금기도 이종태 목사(뉴욕평강교회), 특별연주 전은혜&전애실 사모, 설교 이용결 목사(영생장로교회 원로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결 목사는 “팬데믹의 어려움에도 교회 문을 안 닫고 이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뉴욕심포니교회의 부흥을 소망한다. 부흥의 세가지 비결은 첫째는 교회는 평안해야 한다. 둘째는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 셋째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회부흥을 위해 문제 앞에 먼저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다. 이 블라인드 스포츠를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경일 목사(뉴욕계명장로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으며 이날 만찬을 위한 기도는 서우석 목사(우리반석교회)가 했다. 한편 본 교회에는 항상 커피와 빵이 준비되어 있는 카페가 있어 방문을 환영하고 있으며 찬양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 뉴욕 심포니 코랄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코랄 심포니 지휘 신동기 목사, 반주 신주희 사모이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연습한다.

(홍현숙 기자)



ACE 1주년 감사예배 및 사역 보고회를 마친 후 사진촬영 했다

# ACE 1주년 감사예배 및 사역 보고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ACE(Adullam Community in the Endtime 사무총장 장규준 목사)는 11월2일(목) 오후 7시 1주년 감사예배 및 사역 보고회를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개최했다.

ACE는 다음세대를 일으키고, 양육하고, Network함으로 차세대 지도자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목적으로 설립되어 뉴욕과 LA, 달라스, 캐나다 등 미주와 한국 법인에 48명의 스텝과 전 세계에 513명의 기도와 물질 후원자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다.

장규준 목사(ACE 사무총장)는 “오늘 감사예배와 보고회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하는 행사이고 여러 단체의 관계자들이 캐나다 밴쿠버, 텍사스 달라스, 한국에서 참여한 특색 있는 감사예배”라며 “예배와 보고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참여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최연동 목사 사회로 시작한 1부 예배는 환영사 장규준 목사, 경배와 찬양 리베라톤 찬양팀, 기도 이지훈 목사, 성경봉독 엘리스 조, 특송 리베라톤 찬양팀, 설교 유수연 사모와 정병길 목사, 헌금주주 이인철 목사, 헌금기도 김준근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수연 사모(ABC 교육위원장)는 영상을 통해 “동성애 등 약해져만 가는 미국 공교육의 현실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약법들에 의해서 더 망가져 가는 세대를 그냥 둘 수 없다. 이 세대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올바른 교육정책을 위해 걸여온 모든 길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살면서 늘 고백하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이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하다”고 전했다.

(홍현숙 기자)

정병길 목사는 '진정한 정체성 (창 1:26-28)'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특별한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한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붙어있어 아버지의 부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규준 목사(ACE 사무총장)는 “오늘 감사예배와 보고회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하는 행사이고 여러 단체의 관계자들이 캐나다 밴쿠버, 텍사스 달라스, 한국에서 참여한 특색 있는 감사예배”라며 “예배와 보고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참여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장규준 목사(ACE 사무총장)는 “오늘 감사예배와 보고회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하는 행사이고 여러 단체의 관계자들이 캐나다 밴쿠버, 텍사스 달라스, 한국에서 참여한 특색 있는 감사예배”라며 “예배와 보고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참여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장규준 목사가 ACE의 도전(ACE의 현재상황 및 미래의 계획들)을 소개하고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손정훈 목사(ACE 부사무총장)의 광고, 정관호 목사(뉴욕목사회 부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병섭 목사가 식사기도한 후 산수감산2에서 만찬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ACE 1주년 기념 행사로 지도박 선교사를 초청해 △뉴욕집회는 11월3일(금)과 4일(토) 오후 8시, 5일(주일) 오후 5시 뉴욕나사렛중앙교회(담임 김준근 목사)에서, △뉴저지 집회는 11월8일(수) 오후 8시 뉴저지갈보리연합감리교회(담임 문정웅 목사)에서 각각 개최했다.



이진아 대표가 강의하고 있다

### 성경적 자녀양육 & 성교육 세미나 개최

“성경적 성교육을 위해 먼저 영성훈련이 되어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성경적 자녀양육 & 성교육 세미나를 3일(금)과 4일(토) 양일간 학부모, 다음세대 사역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진아 대표(남가주다음세대 지키기 대표)가 강사로 나서 열면 강의를 했으며 참석자들은 이진아 대표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스크린에 소개된 내용을 핸드폰 렌즈에 담은 등 집중력 있는 강의로 진행됐다.

4일(토) 오전 9시30분에 열린 두 번째 강의는 이진아 대표가 ‘자녀를 위한 나이별 성경적 성교육과 바운더리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진아 대표는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에게서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모들은 자녀를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을 받은 자이다. 따라서 자녀들의 성교육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3-4세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 성가치관 교육도 함께 해야 한다. 가치관은 가정과 생명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며 성교육

은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이트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자녀들이 미래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과 믿음의 남자로 자라나게 해야 한다. 성교육은 연령에 맞게 해야 하지만 단지 숫자적인 연령으로 하기보다는 각자에 맞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미 포르노 시청 경험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성인에 맞는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경적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의 영성훈련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순결을 잃어버린 자녀가 있다면 다시 순결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요일에 열린 첫 번째 강의는 ‘다음세대의 위기, 미디어와의 전쟁’, 토요일에 열린 세 번째 강의는 ‘사춘기 세미나 특강 파트1: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네 번째 강의는 ‘사춘기 세미나 특강 파트2: 순결을 위한 영적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진아 대표가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 한인기독합창단 제62회 정기연주회

“노래와 시로 찬양했던 다윗처럼 맘껏 찬양하는 시간되길”

한인기독합창단(단장 김은영, 지휘 제갈소망) 제62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11월 5일(주일) 저녁 6시에 패사디나 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Shout for Joy to the Lord”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 제갈소망 지휘자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길 간절히 사모하는 40여명의 한인기독합창단원들과 게스트아티스트 및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정성과 열정을 다해 준비했다”며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와 시로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마음껏 기뻐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 한다”고 말했다. 김준

석 목사(남가주살롬교회) 기도로 시작된 정기연주회는 정해진 부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비발디의 ‘Magnificat Rv610’, 그는(장세기-요한계시록)을 불렀으며 부지휘자 이희성의 지휘에 맞춰 ‘글로리아’를 불렀으며 ‘The Old 100th Psalm Tune’를 회중들과 함께 불렀다. 또한 제갈소망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찬송하세’,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Mgokujabila’, ‘찬양의 심포니’를 불렀다. 또한 아르모니아 싱어즈, 플루 최혜성과 하프 윤희진이 찬조 출연하여 이날 연주회를 빛내주었다.

(박준호 기자)



한인기독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단원들이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임마누엘장학회 선교후원 및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임마누엘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가져

지난 14년간 16개 대학생 및 선교단체 508명에게 장학금 지급

사단법인 임마누엘장학회(Immanuel Scholarship Foundation, 총재 강원식 신신그룹 회장, 회장 김문자 목사)가 지난 30일(월) 오후 5시 임마누엘선교교회(담임 이진경 목사, 4120 W. Pico Blvd)에서 제13회 창립기념예배 및 제14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멕시코 조성현 선교사(임마누엘장학회 본부장)의 인도로 진행된 1부 창립 축하예배에서 최영아 전도사(에반젤리아대학교)가 대표기도, 이상병 총장(미주장로회신학대학)이 ‘보냄 받은 사람들’(요17:11-1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 했다. 이상병 총장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또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동역자들”이라며 “학교도 다르고 사역하는 기관도 다르고 우리 각자의 개성도 다르지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인사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파송된 거룩한 이민자들이다. 최초의 이민자 아브라함, 모세, 요셉, 이스라엘민족도, 바울도 모두 이민자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이민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처럼 우리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야 된다. 둘째, 우리는 거룩한 영성으로 사역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거룩한 영성이 우리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야만 된다. 참된 영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악한 무리들을 능히 이겨나가야만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장학금은 브라질 신학교외 6개 신학대학(원)과 선교단체에 24,400 달러를 지급했다. 임마누엘장학회는 지난 14년간(2010년-2012년)간 16개 대학(원)생 및 선교단체 508명에게 226,500 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은혜한인교회 추수감사절 신유집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추수감사절 신유집회가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최홍천 목사(꿈이있는교회 담임)

▲ 문의: (714)446-6200

#### GBC 한미동맹 70주년,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특별기획 프로그램 ‘도산, 오늘을 살다!’ 방송

미주복음방송(GBC 사장 이영선 목사)는 특별기획 뮤지컬 다큐멘터리, ‘도산, 오늘을 살다!’가 9일부터 16일까지 주중 오후 6시부터 30분 간 방송된다. ‘도산, 오늘을 살다’는 한미동맹 70주년, 미주한인 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최초 한인 이민자이자 일제 강점기 대한제국의 교육 개혁과 해외 독립운동의 선구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과 활약을 조명하며, 무대 예술인 그룹 ‘시선(클라라 신 대표)’의 창작뮤지컬 ‘뮤지컬 도산’을 라디오 뮤지컬로 재연출하고, 도산의 정신을 이어받아 후손에게 잘 전하고 오늘의 도산을 살아가는 후예들의 목소리를 생생한 현장인터뷰로 담은 라디오 다큐뮤지컬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190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와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미주 정착을 이끌고 전국적으로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애국지사 중 한 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도산 선생의 바른 정신과 가르침을 전하여, 민족정체성이 약한 이민 2,3세대에게 애국정신과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문의: (714)484-1190

#### KAGC 김동석 소장 간증예배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는 KAGC(미주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김동석 소장 간증예배를 15일(수)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문의: (323)913-4499

#### 나성영락교회 찬양대 지휘자 모집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정규대학원 합창지휘 또는 성악 전공자로 찬양대나 합창단 3년이상 지휘 경험자로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신앙간증서, 사진(각 1매), 추천서 2매이며 모든 서류는 나성영락교회 인사위원회(office@youngnak.com)으로 보내면 된다.

▲ 문의: office@youngnak.com

#### 니성한미교회 ‘제32회 러브 엘몬테’ 행사

니성한미교회(담임 홍충수 목사 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가 지역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초청하고 섬기는 ‘제32회 Love El Monte’ 행사를 오는 11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최한다. 올해 32회째 맞이하는 이 행사는 Face painting, Activity toys, Cotton candy, Popcorn, Moon Bounce와 같은 게임이 열리고 홍충수 한미교회 담임목사, 레이몬드 앤드리 마운튼부 교육구 교장, 제이크 피셔 경찰국장 등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 찬양은 아과 비바교회 제수스 허난데스 목사, 시베드 교회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며 히스패닉, 필리핀, 한국음식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선물나눔의 시간도 있다.

▲ 문의: (626)444-0058

#### 선한청지기교회 건강세미나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는 건강세미나를 본교회 실버사역부 주최로 18일(토) 오전 10시에 갖는다. ‘백세시대! 10년은 젊어지자! 노화 잡는 똑똑한 뇌 건강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여는 이번 건강세미나의 강사는 박진희 한의사(Family Tree Wellness대표)이다.

▲ 문의: 조은성 목사 (626)913-6611



달라스중앙감리교회 은퇴 및 취임예배가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우측위는 이날 은퇴한 3대담임 이성철 목사와 취임한 4대담임 배연택 목사

### 달라스중앙감리교회 은퇴 및 취임 감사예배

이성철 담임목사 은퇴, 배연택 담임목사 취임

달라스중앙감리교회 은퇴 및 취임 감사예배가 5일(주일) 오후 4시에 거행됐다. 본 교회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구성된 세대 찬양대 찬양으로 시작된 이날 감사예배는 박광배 목사가 대표기도를, 김주일 목사(웨이크주님의 교회)가 성경봉독을 한 뒤, 장동찬 목사가 ‘십자가와 성령의 사랑’(고후 4:10-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이성철 목사 집례로 시무장로 은퇴식을 갖고 김정근, 박연선, 우안식, 윤용우, 이달순, 정동호, 최영재, 허환 장로가 은퇴했으며 이어 이성철 담임목사 은퇴식을 갖고 은퇴감사패와 꽃다발, 기념품

을 이성철 목사와 이남신 사모에게 전달했다. 이성철 목사는 “모든 것이 은혜이다. 교회는 떠나지만 생각하면 기도해 달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이다. 자녀들을 섬겨보려고 하며 아내를 잘 섬겨보려고 한다. 후임담임인 배연택 목사님을 사랑해주고 잘 섬겨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될 수 있으면 한다.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이성철 목사는 1990년 3대 담임으로 취임하여 33년간 담임목사로 시무했다. 이어 영상으로 은퇴축하메시지가 소개되었으며 조낙훈 목사가 축사했

다. 이어 이성철 목사가 제4대 배연택 담임목사 취임식을 집례 했다. 배연택 목사는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본 교회에서 얻게 된 마음은 어린 다윗의 심정이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며 어린다윗의 모습을 보고 따르라는 마음을 주셨다.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서게 된 다윗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교회를 전심으로 섬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연택 목사와 송은아 사모를 위한 축복기도가 있은 후, 현지용 목사(뉴송교회)가 마무리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박상중 목사(달라스우리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 밴쿠버 시온선교합창단 41회 정기연주회 열려

UGM을 후원하기 위한 자선 콘서트 개최 때

밴쿠버 시온선교합창단(단장 정문현 장로, 지휘 정성자 권사) 41회 정기연주회가 지난달 31일(화)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The Orpheum Theatre에서 ‘From Darkness into the Light(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정기 연주회는 이스트 밴쿠버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는 UGM(Union Gospel Mission)에 모금된 후원금을 전달하는 자선 콘서트로 개최됐다. 정문현 단장은 “밴쿠버 시온선교합창단 41주년 정기 연주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모였다. 특별히 오늘 공연에 함께 한 Church Music Ministry of Canada(CMMC)와 Coastal Church에 감사드리며 UGM을 돕는데 많은 동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David Coope(Coastal Church) 목사의 개회 기도로 열린 연주회는 1부 첫번째 스테이지로 시온선교합창단이 ‘Agnus Dei’, ‘Voyager(항해자)’, ‘Gloria’, 3곡을 찬양했다. 이어 어린이 합창단(지휘자 합소라)이 ‘Spring(봄)’, ‘Joshua’, ‘Flowers’, ‘Praise His Holy Name’ 네 곡을 깜찍하고 절도 있는 울동과 함께 찬양하여 모인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으며 시온선교합창단이 ‘Is He Worthy?’, ‘The Name of Jesus!’ 두 곡을 찬양했다. Is He Worthy 에는 김희은(밴쿠버영락교회) 양과 Phill Vanderbilt과 솔리스트로 참여하며 더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후원금을 전달 받게 되는 UGM 대표인 Dean Kurpijuweit 대표가 특별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40년간 약물 중독자로 살아가던 중 UGM을

통해 약물 중독으로부터 해방되어 현재 멕시코에서 목회하고 있는 John 목사 영상으로 UGM 사역 소개를 마쳤다.

이어 진행된 2부 순서에는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Costal Church 워십팀이 ‘10,000 Reason’, ‘Way Maker’ 두 곡을 관객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난 40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모금된 헌금을 고국 대한민국에서 농맹인 선교사 김용익 목사, 이영경 사모가 진행하는 농맹인 교육센터 설립 기금으로 전달했는데, 특별히 두 분의 감사 인사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시온선교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과 특별 게스트로 Church Music Ministry of Canada Singers(CMMC) 중국 크리스천 합창단이 찬양했으며 이어 마지막 무대로 ‘Go down Moses(가라모세)’, ‘300 Warriors of GIDION(기드온의 300용사)’ 두 곡을 마지막으로 찬양했다. 두 곡이 끝난 뒤에 기립박수가 나왔으며 앵콜이 터져나왔다. 이에 정성자 지휘자는 우리가 마지막날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One Day’를 앵콜곡으로 모든 공연의 막을 내렸다.

(캐나다 크리스천신문 발행, 정리 박준호 기자)



밴쿠버 시온선교합창단 41회 정기연주회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The Orpheum Theatre에서 열렸다



### 폭염·폭우 등 '몬스터 기후' 속출, "창조세계 회복 시급"

#### KWMA·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2023 지구와 선교 포럼' 개최

지난여름 남미 아르헨티나의 한겨울 온도가 30도에 이르면서 117년간의 기상 통계 중 전례 없는 이상 고온을 기록했다. 비슷한 시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시작된 산불은 한반도 면적 이상의 토지를 태웠다. 이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2.9t이나 됐다. 지난 8월 그리스에서는 유럽연합(EU)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얼마 후 1년치 비가 단 하루 만에 내렸다. 폭우는 역사

상 최악의 흉수로 기록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25)고 말씀하신 창조 세계가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한 사례들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지난 8월 동작구 KWMA 세미나실에서 '2023 지구와 선교 포럼'을 열고 해외 선교지의 기후위기를 조명했다. '선교지의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는 해외 선교지에서의 미흡한 기후

위기 대응 실태가 확인됐다.

KWMA와 살림이 지난 7월 말부터 2개월간 선교사 2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선교지역 중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실천 캠페인 여부'에 대해 응답자 중 65.5%가 "한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기후 변화에 관한 관심'에 있어서는 선교사 10명 중 7명 정도(69.3%)가 "많다"고 답했다. 선교사의 기후환경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협력 방안으로 선교사들은 '기후 환경 교육 콘텐츠 제공'(43.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환경 선교에 대한 인식 제고'(31.2%) '선교지 기후위기 현황 공유'(12.7%) 등의 순이었다.

유미호 살림 센터장은 "앞으로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펼치는 제자훈련, 지도자 양육 등의 사역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구 KWMA 센터장은 "그동안 선교사가 현지인에게 창조세계에 대해 가르치고 크리스천의 사명과 책임을 알리는 역할을 놓친 것 같다. 한국 선교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 "미래의 신학교육은 머리 아닌 몸·기심으로 움직여야"

#### 한국기독교학회 학술대회 개최

교회와 신학이 살아남으려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깊은 신학적 탐구와 더불어 삶에 대한 나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국기독교학회(회장 임성빈)가 '대전환시대, 신학교육의 변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다.

이학준(사진) 미국 풀러신학

교 석좌교수는 4일 서울 광진구 장신대 환경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신학회 학술대회 주제강연에서 "미국 신학교들은 학생 유치를 위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동시에 제공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학비와 수업일수, 이수학점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

이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교수는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해체성과 변화, 생태계와 인간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신학교와 신학교육이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현재 인류에게 필요한 새로운 영적·도덕적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신학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본회퍼의 지하신학교'가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하신학교는 나치 치하에서 종전 이후 새로운 유럽을 꿈꾸는 대안적 공동체였다. 본회퍼는 학생들과 함께 먹고 자고 공부하고 명상하고 토론하고 음악과 운동을 즐겼다. 이 교수는 "지하신학교에는 깊은 신학적 탐구와 삶의 나눔이 있었다. 앞으로의 신학교육은 머리만이 아닌 몸으로 가는 교육, 몸을 통해 기쁨이 변화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한국사회 곳곳에 이런 지하신학교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함께 성경 읽고 들으니 썩썩" 퇴근 후 직장인들이 모인다

#### 지앤엠 주관 '공동체성경읽기'

지난 2일 오후 5시40분. 빌딩 마천루가 즐비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복판의 국제금융센터(IFC) 50층. 지앤엠글로벌 문화재단(지앤엠·공동대표 김민호 김영목) 본부에 모여 퇴근한 직장인이 하나둘 모였다. 모임 장소가 익숙한 듯한 이들도, 낯선 표정의 방문객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한자리에 모인 목적이 있었다. 함께 성경을 읽기 위해서였다. 오후 6시 정각. 현장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모인 40여

명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직장인을 위한 공동체성경읽기(PRS)'에 동참하는 이들이었다. 이날 모임은 1·2부로 나눠 총 2시간 동안 이어졌다. 1부에는 '목회자들의 묵사'로 꼽히는 유진 피터슨(1932~2018)의 저서 '이 책을 먹으라'를 오디오북과 함께 읽었다. 30분 동안 정해진 분량을 읽고 나머지 30분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감을 자유롭게 나눴다. 2부는 성

경통독이 이어졌다. 주회 측은 모임마다 '오늘의 본문'을 정해 신구약 성경을 동시에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은 시편 89장, 욥기 41~42장, 누가복음 16~17장, 시편 90장을 통독했다. 모임의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는 시편 본문으로 대체됐다. 통독은 독서 모임 방식처럼 정해진 분량을 오디오 성경과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갔다. 통독 모임에 제공되는 오디오 성경은 지앤엠이 2017년 제작한 '드라마 바이블'로 100여명의 연기자, 성우와 함께 4년 넘게 공들여 만든 '듣는 성경'이다. 통독을 끝낸 후에는 묵상과 마침 기도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직장인을 위한 PRS 모임은 2015년 시작됐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로 모임이 전면 중단되면서 줄로 이어오다가 지난 8월 오프라인 모임을 재개했다. 지앤엠에서 주관하는 공동체성경읽기(PRS)는 현재 전국 330개 이상의 교회와 대학에서 동참하고 있으며 확산되고 있다. PRS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동체성경읽기' 앱을 다운받으면 된다.



### 지문·혈액·뼈... 인체 모든 부위까지 창조의 증거

#### 김치원 목사, 창조과학부흥회

"국내의 학교는 물론이고 과학자들은 진화론 등 증거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설을 사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구가 저절로 탄생했고 인간은 오랑우탄과 침팬지에서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덕교회(김병태 목사) 본당. 강단에 선 김치원(창조반석교회 원로) 목사가 PPT를 띄워놓고 진화론의 허구와 창조론의 진리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창

조과학부흥사회 회장이기도 한 김 목사는 25년간 국내외 교회와 단체 등을 누비면서 창조과학을 알리고 가르치는 자칭타칭 '창조과학 전도사'로 꼽힌다.

무신론·반기독교 정서가 득세하면서 창조과학이 전설·신화 취급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 목사가 목회자와 교인, 새신자 등을 대상으로 이어오고 있는 '창조과학 부흥회'는 1000회에 달한다. '핑계할 수 없는 창조주의 존재'를 주제로 한 이날 집회에서 김 목사는 "창조과학

은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일하게 믿기보다는 말씀의 검을 통해 창조가 전설·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야"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가 45장 18절 말씀을 제시하면서 "창조주께서 사람이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물 산소 오존 중력 등 장치를 배열하셨으며 꽃과 나무, 벌레와 새, 지문 혈액세포 뼈 등 인체 한 부위 한 부위까지도 모두 하나님 창조의 확실한 증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목사는 "창조과학을 기반으로 한 전도를 통해 농촌 마을 인데도 1년 동안 새신자 10명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소식을(은광교회)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부흥회에 참석한 명덕교회 성도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이영숙(68) 권사는 "더 많은 사람이 창조에 확신을 갖고 구원과 천국의 존재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목사는 "창조과학은 불신자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 학교에서 배운 것과 충돌이 없도록 해 교회 정착을 돕는다"며 "신학교와 교회가 진화론에 대처하는 창조과학 설교와 교육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종진 목사 11월 부흥성회

- 동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1(수) 저녁 한미연합부흥강사단(Korean & American Preacher Association) 연합성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장소 : 광양 새생명교회(이강애 목사) 010-5692-5561  
대전 주사랑병원기독병원(박사) 아산연세의료원(박사) 010-2272-9119  
서울 위대한의수교회(임미향 목사) 010-6201-8374  
서울 정로연교회 안재권장로 대표회장 취임식, 장소 : 남서중앙교회  
연세대학교 연신원 정기총회, 장소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관  
왜관 금호신교회 부흥사역수행(대교회장 정대우 목사) 010-2296-0675  
양주 신희안연수원 민족복음화중앙본부 부흥사역수행  
(이사장 이영구 목사, 총재 권미선 목사, 대회장 박형준 목사)  
7(화) 오후 서울 강남순교교회(오승준 목사) 010-3942-8434  
7(화) 저녁 오산리 최자실기념교회(원장 김원철 목사) 02-6181-9282  
주최 : Win부흥사협의회(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대표총재 정사무엘 목사)  
8(수) 오전 성남 은총교회(노균에 목사) 010-3765-0658  
8(수) 오후 송추반석교회(고관은 목사) 010-2391-3004  
8(수) 저녁 서울 능률신교회(임은선 목사) 010-4719-5471  
10(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명 목사) 010-8331-3431  
11(토) 오후 인천 마리나타워복음방송(김도보라 목사) 010-8954-8956  
12(주) 저녁 동두천 영광교회(민용기 목사) 010-2628-2002  
13(월)~16(목) 충주 다메섹 기도원(원장 이승우 목사) 010-9229-9859  
17(금) 오전 오산 힐링교회(최광명 목사) 010-8928-5007  
18(토) World Mission Worship  
19(주) 오후 서울 누가선교회연합교회(김성만 목사) 010-6230-5530  
19(주) 저녁 서울 만나교회(이찬술 목사) 010-2191-3131  
20(월)~22(수) 부산 새비전교회(조남수 목사) 010-0667-5321  
23(목)~24(금) 전주 새별기도원(원장 박순자, 원목 최충만 목사) 010-3678-5942  
26(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27(월)~29(수) 강남 금식기도원(원장 최동민 목사) 교무부장(김진성 목사) 010-3790-2462

제 234차 해외성회 (234th Overseas Assembly)  
28(화) 미국(U.S.A) LA도(ASIANA202 AM 08:40)  
29(수)~30(목) 미국(U.S.A) 미주서부지역세계기도성회( pray for all nations)  
미주서부지역 총재 김영구 목사  
미국(U.S.A) LA 광명교회(김영석 목사)  
12월1(금) 미국(U.S.A) LA Sams Community Church(Pastor,Sams)  
2(토) 미국(U.S.A) Las Vegas 늘푸른교회(노은철 목사)  
3(주) 미국(U.S.A) Las Vegas 중앙장로교회(이철 목사)  
4(월)~5(화) 미국(U.S.A) Las Vegas → LA → KOREA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or.kr  
남서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09호330 Fax. 02)401-7770

## 2023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

###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 "한국교회가 탈북민 상처 보듬고 통일 준비 나서길"

#### 남북한 청년, 국회의원, 목회자 등 북한 인권과 통일, 탈북민 정착 등 관심 호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탈북민 정착과 북한 인권,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와 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안에진리교회(이태희 목사)가 5일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연 '2023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에서다.

탈북민 대하송 송예든(가명·24)씨는 이날 집회에서 '대한민국 교회에게'란 주제로 연설했다. 한동대에 재학 중인 송씨는 "탈북으로 생긴 트라우마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이

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예수의 사랑으로 저를 품고 기도해 준 분들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에는 탈북민 3만5000여명이 있다. 한국교회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면 상처를 극복할 뿐 아니라 가정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동대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모임 때마다 느끼는 건 청년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이 정말 없다는 것"이라며 "하나

님은 소수의 인원이 드리는 기도도 응답하는 분이아 믿는다. 우리의 기도를 계기로 한국교회와 다음세대가 북한과 통일에 대한 비전을 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란 주제로 열렸다. 탈북민 청년뿐 아니라 국회의원 목회자 등이 연단에 올라 북한 인권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란 주제로 발언한 최재형 국대민회 의원은 "최근 재중 탈북민 2000여명이 강제 복송을 앞둔 일이 있었다. 이들의 처참

한 상황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며 "외적 팽창에만 관심을 가진 지난날을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자"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거듭나 기도와 실천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면 '위대한 통일한국'은 결국 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회는 참석자 500여명의 시가행진으로 마무리됐다. 이태희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실천할 때 한밤도 통일과 부흥이 가능해지리라 믿는다. 이날이 곧 오도록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고 말했다.

##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선교의 창 (227)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전문인 자비량 선교(Tent-making Mission)

전 세계 80억 인구의 복음화는 요원하단 말인가? 아직은 그렇다. 복음화율이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Pew Research Center 통계에 의하면 2020 기준 세계 크리스천 수는 23억 8천만 명이다. 이 숫자도 광의의 기독교적 측면에서 추산한 것이다. 이를테면 가톨릭, 동방 정교, 개신교, 기타 유사 기독교를 총 합산한 것이다. 순수 개신교는 약 8억으로 나와 있다. 이로써 2/3 이상의 절대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왜 교회들이 2천 년간 선교를 해 왔음에도 복음 확산은 이토록 더디 진행되고 있던 말인가? 답은 간단하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었기(마 9:35-38) 때문이다. 세계선교는 선교사라는 대표 선수 몇 명으로 될 일이 아니다. 우리 개신교의 선교적 패러다임에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 한 대안은 이제 목회자 선교사보다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하여 주력 부대로 보내는 것이다. 저들은 교회 안에 절대 다수이며 다양한 은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을 깨우고 선교적으로 동원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불신자 수와 그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말 것이다.

### 1. "텐트메이커" 어원의 유래와 의미

"장막 만드는 사람(Tentmaker)"이란 사도행전18:1-4에서 유래한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

드는 것이더라. And because he was a tentmaker as they were, he stayed and worked with them."(행 18:3). 이 말을 크리스티 윌슨(Christy Wilson)이 선교에 적용하였다. 그는 아프리카인 선교사로 일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와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면서 "현대의 자비량 선교사들"(Today's Tentmakers)이라는 책을 썼다. 그 책에서 Tentmaker를 자비량

을 받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선교하는 것을 말한다.

### 2. 전문인 자비량 선교에 대한 제2차 로잔대회 선언문

제2차 국제 로잔대회는 198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는 주제로 전 세계 170개국의 다양한 교파와 선교단

체 출신의 3,000여 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모였다. 마닐라 선언문(Manila Manifesto) 중 전문인 선교는 제11항: 서기 2000년도와 그 이후의 도전 (THE CHALLENGE OF AD 2000 AND BEYOND)의 제목 아래 적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많은 국가에서 그 나라에 기여할 만한 일이 없으면 선교사로 임국코자 할 때 임국사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역들에 절대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휘장도, 문도,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라디오나 텔레비전, 오디오 비디오패킷, 필름이나 책자를 통해서 그런 지역까지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소위 "전문인 자비

량(自備糧)선교사"(Tent makers)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들은 직업과 관련하여(예를 들면, 상인, 대학교수, 전문 기술인, 여학 교사) 여행하며,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상 정당하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 자체로써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전도는 자연히 되어지는 것이다.

### 3. 전문인 자비량 선교의 필요성

허버트 케인(J. Herbert Kane) 박사는 "해외에 나아가게 되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려면, 이것은 세계선교 운동에 미래의 물결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문인 자비량 선교(Tent-making mission)는 기본적으로 직업

셋째 재정적 부담이다. 교회의 선교지원에 한계가 있다. 목회자 선교사들은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 하지만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들은 이 점에서 자유롭다. 넷째 신분의 안정을 가져다준다. 심적으로 뒤흔다. 직업을 통해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다.

### 4. 전문인 자비량 선교의 보완점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는 일인다역을 해야 한다. 그 중 핵심은 복음 사역자로서 전문성과 생계 수단으로서 직업적 전문성이다. 일반적으로 목회자 선교사일 경우 많은 세월동안 준비하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비해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는 허입과 파송 체계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대체로 평신도들이 특정 기술과 선교적 열정이 있으면 너도 나도 쉽게 선교지로 향했다. 이로써 한인 교회 가운데는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먼저 파송 전 전문인 선교사로서 자격이 되는지를 철저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선교사로서 소명의식과 더불어 전문 직업인으로서 실력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 이후 선교사로서 필요한 소양 교육 등을 준비시킨다. 나아가 파송 후 관리이다. 독립군처럼 마음대로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선교부와 긴밀한 네트워크 속에서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미개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경우에는 "전문인 자비량 선교"의 정신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스스로 기초를 쌓을 때까지 제반 지원 문제를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선교사 재충전 및 복지후생 등도

목회자 선교사처럼 세세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 맺음 말

선교학자들은 21세기를 가리켜 전문인(Tent-Making Mission) 선교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선교를 직업으로 하지 않는 선교사(Non-professional missionary)를 일컫는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목사나 전임 사역자가 아니기에 평신도 선교사(Lay missionary)로 불리이기도 한다. 서구권 선교사는 대부분이 전문인 평신도이다. 하지만 한인교회는 이와 정반대로 목회자 선교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날이야 어떻든 우리는 앞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파송 선교사의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 그것은 선교의 주력부대를 목회자 선교사에서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로 대체하는 것이다. 전문직업을 가진 선교사는 이점이 많다. 흔히 직업을 3M이라 한다. 첫째 Money(돈)이다. 당연

전 세계 복음화율은 인구 증가율을 앞서지 못하고 있다. 선교사라는 대표 선수적인 몇 명으로는 세계선교를 이룰 수 없다. 이제는 절대 다수인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들을 주력 부대로 동원해야 한다.

히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생계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Meaning(의미)이다. 직업은 이웃과 사회에 유익을 가져다준다. 이윳을 섬기는 도구이다. 셋째 Mission(선교)이다. 직업을 통해 신분의 안정을 도모하며 일터의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인 선교사들은 단순한 눈가림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직업이어야 한다. 직업은 결코 버려야 할 것이 아닌, 또 다른 부르심의 현상이다. 한인 세계선교가 모라비안 공동체처럼 인적으로 1/10을 선교사로 보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라면 어려울 것이 없다. 여호와 라파!

Jrsong007@hanmail.net

##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 (14)

### 루이스의 아내 조이 데이비드 맨(1)

C. S. 루이스가 명성을 얻고 특히 대중적인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자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다. 유명한 방송 설교자와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비난과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지론자들은 C. S. 루이스에게 Heavy 루이스라는 별명을 붙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루이스의 신학 부재를 지적했고, 근본주의자들은 문학적 성경해석과 범 종교적 박애 사상을 공격했다. 루이스가 대중적인 전도자와 변증가로 활동하며 그야말로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비판과 비난보다 더 신랄하고 강력했던 비난은 헬렌 조이 데이비드 맨과 결혼한 것에 대한 비난이었다. 이 비난과 비판이 강력했던 것은 루이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루이스의 주변 사람들은 60이 다된 노총각이 사십대 이혼녀에게 장가가는 것을 마뜩잖게 생각했다. 더욱이 그녀는 아이 둘이

있는 미국 여성이었고 심지어 공산주의 활동 경력까지 있었다. 루이스의 친구들은 모든 점에서 찬성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전제적인 영국의 인문학자와 매력적인 미국의 여인은 1956년에 결혼했다. 헬렌 조이 데이비드 맨은 C. S. 루이스를 만날 즈음 촉망받는 음악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주 1권 이상의 책을 읽었던 독서광이었다. 아울러 그녀는 글쓰기를 즐겼고 그녀 시(詩)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데이비드 맨이 C.S. 루이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특히 시를 썼던 루이스는 그녀가 시인이라는 점이 무척 끌렸던 것 같다. 헬렌 조이 데이비드 맨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여성이었다. 어린 시절 학교 지능테스트(IQ Test)에서 기록을 경신했던 수재였으며, 학창시절에는 음악적 재능도 탁월했었다. 특히 그녀는 쇼팽의 곡들을 아무

런 연습도 없이 초견에 피아노를 연주해서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탁월한 연극의 재능도 보였다. 셰익스피어 연극 대본을 한 번 읽고 대사를 암기하여 연기를 선보여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헬렌 조이 데이비드 맨보다 네 살 어린 남동생 하워드 데이비드 맨은 누나에게 열등감을 가졌던 경험을 고백했다. 그의 누나 조이는 똑똑하고 적극적이어서 자랑스럽기도 했고 질리기도 했다고 한다. 하워드 데이비드 맨도 탁월했었다. 그는 버지니아 주립대학을 졸업 후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정신과 의사로 뉴욕 맨하탄에서 병원을 운영했었다. 그는 누나 조이 데이비드 맨의 글쓰기 능력에 야코가 죽어 누나가 죽기 전까지 책을 출판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조이는 많은 재능 가운데 시 작(詩作)을 지속해서 계발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에 시를 몇 편 발표했는데 문단의 주목



강태평 목사 (월드채어USA대표)

을 받았다. 드디어 1936년 1월에 시카고 지역 유명한 시 전문잡지 '시계(Poetry)'에 그녀의 시들을 실렸다. 시 전문잡지 '시계(Poetry)'는 당시 유명한 시인이요 문학 평론가였던 해리엇 먼로(Harriet Monroe)가 편집장이었던 권위 있는 시 전문잡지였다. 조이 데이비드 맨의 재능을 알아본 해리엇 먼로(Harriet Monroe)가 그녀를 '시계(Poetry)'의 편집위원과 시 선정위원으로 임명했다. 조이 데이비드 맨은 교사직을 그만두고 시(詩) 전문 잡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조이의 시작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이는 점점 시인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조이는 스물세 살에 당시 유명한 시인이요 출판전문가였던 스티븐 빈센트 베네이(Stephen Vincent Benet) 주목을 받았다. 스티븐은 조이의 시들을 묶어 젊은 작가 시집 시리즈의 한편으로 출판하도록 도와주었다.

에일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된 이 시집이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이 시집 때문에 조이는 뉴욕에 유명한 문학출판사였던 브란트 앤 브란트(Brandt and Brandt)와 맥밀런(Macmillan)의 작가로 활동하며 책을 발간했다. 이것은 시인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작가와 출판업계 종사자로 조이 데이비드 맨은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했다. 이것은 당시 지식층에 유행하는 일종의 유행병이었다. 조이는 사회주의를 따르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그녀는 자본주의와 미국의 사회제도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을 비판했고 공산주의자 전문 잡지에 파트 타임으로 편집을 도왔다. 조이는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 린제이 그레삼(Lindsay Gresham)의 매력에 끌리게 되었다. 그레삼은 소설가, 기자, 기타 연주자, 성악가로 활동했다. 이런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그레삼과 사랑에 빠져 결혼한 그녀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무책임한 모습에 실망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사춘기 불륜 행각을 벌이는 것에 실망하여 낙심하며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다치는 대로 읽던 조이가 만난 책이 C.

S. 루이스 책이다. 그녀는 성경과 C. S. 루이스의 글을 읽으며 신앙을 키우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그녀와 비슷한 영적 상태에 있었던 채드 웰시(Chad Walsh)가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CS 루이스에 관한 글이었고 몇 달 후 "회의론자들의 사도, C. S. 루이스(C. S. Lewis: Apostle to the Skeptics)"란 책을 발간했다. 조이는 이 책을 읽고 저자인 채드 웰시(Chad Walsh)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루이스에 관한 궁금증을 풀었다. 그리고 채드의 조언대로 루이스의 모든 책을 읽게 되었고 루이스가 영향을 받았던 찰스 윌리엄, 조지 맥도날드, 체스터튼, 도모시 세어 등의 책들도 탐독하게 되었다. 조이 신앙도 성장해서 조이는 두 아들과 세례를 받았다. 채드나 그녀가 결혼한 뉴욕교회 담임 목사에게 그녀는 거듭난 사람으로 보였다. 채드 웰시가 조이에게 영국의 작가인 루이스에게 편지를 보내보라고 권했다. 루이스의 책에 관한 그녀의 생각과 질문들을 적어 보내면 루이스가 회신을 보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채드의 권면을 듣고 조이가 용기를 내어 루이스에게 편지를 쓰기를 꺼려 2년이 걸렸다. 조이가 루이스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1950년 1월이었는데 이 편지로 두 사람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었다. Kangtg1207@gmail.com

###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 월 하나님에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마 16:17-19) 찬 412장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없고 자신의 죄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마련하셨다. 그 열쇠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로 주신 가장 귀한 복이다. 나는 그 열쇠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만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모시고 살면 모시고 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가르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열쇠가 없는 사람이다.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열쇠를 확인하라. 열쇠가 확실하게 있는 자는 천국에서 살 소망을 품고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부지런히 준비하라.

#### 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게 높임을 받는다 (마 18:1-4) 찬 430장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는다. 천국에서도 크게 높임을 받는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임을 알자. 죄의 성품에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충동이 수시로 나타난다. 겉으로는 겸손하게 하지만 속에는 교만함의 생각이 기회만 있으면 나타난다. 어떻게 하면 겸손 할 수 있을까? 항상 주님이 같이 하심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이지 않아야 한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사람 앞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 주님을 잊고 살면 나를 높이고 나의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충동에 쉽게 빠진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무시하고 살지 않도록 하라. 같이 하는 사람만 보지 말고 같이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 수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말을 들으신다 (마 18:19-20) 찬 436장

주님이 성령으로 항상 같이 하신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도 같이 하심을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가 말로서 주님을 부인하고 약속하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분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사람과 만남에서 하는 말은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깨어 살아야 한다. 눈을 감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만남에서 하는 말들이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다. 대화에서 주님을 불신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응답을 하시겠는가? 특별히 고통을 겪을 때 같이 하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주님을 높이는 말과 생각을 하여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일하신다. 너무나 주님을 일상생활에서 무시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신다. 심는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 목 이웃의 허물을 칠십번이라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마 18:21-22) 찬 449장

내 안에 살아 있는 죄에서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기를 원치 않고 심지어 복수하고자 한다. 그러한 죄의 생각을 따라 내가 살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가 삶의 쫓겨점이다. 내가 용서함이 아니라 주인이 용서하라고 하심을 순종으로 내가 섬기는 것이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사는 것이 내가 달려갈 인생의 길이다. 예수님이

가장 악한 죄인이 당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그렇게 당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신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주님에게 순종하므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다. 기독교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 사랑은 주님이 사랑하신 것이다. 나의 사랑이 아니다.

#### 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마 19:16,25,26) 찬 268장

사람은 본래 죄의 종이다. 죄의 지배하에서 산다. 죄가 주인 노릇한다. 죄는 사랑의 생각으로 사람을 사용한다. 사람은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 스스로 죄 안에서 자유 할 수 없다. 죄의 사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지식으로 산다. 죄가 사랑의 생각으로 왕 노릇한다. 이러한 죄의 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나

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예수님을 모시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매일 삶에서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인도하신다. 빛만이 어둠에서 자유하는 법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영생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생각을 믿고 따르고 누리고 살아라. 그리하면 사랑의 세력에서, 놀림에서 벗어나는 영생을 누리며 하루하루 죄에서 구원을 받으며 살 수 있다.

#### 토 하나님에 내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알고 받고 누리라 (마 20:1-15) 찬 292장

포도원 주인이 한 시간 노동한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샅을 주었다. 주인은 계산하여 줄 수도 있고 또한 은혜로도 줄 수 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심는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시기에 나중에 우리가 범한 죄를 따라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모시고 섬기는 자에게는 은혜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 이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도 나에게 은혜로 사랑을

베푸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신다.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자신은 계산하여 받고자 하는 죄의 생각안에 있기 때문이다. 율법 앞에서 자신의 자격을 계산하지 말고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고 넘치게 받으라. 잔이 넘치게 누리는 믿음으로 살아라.

### 기독교 교육 (37)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 잊혀진 사람들, 팔레스타인의 아랍 크리스천들

몇 년 전 여름 학생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일곱째 날 나사렛에서 한 아랍 크리스천 가정의 초대를 받아 인상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인 내외가 스스로를 "잊혀진 사람들"이라며 자신들의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창 10:14). 지중해의 갑돌(그레데)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다 사람들(Sea People)'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렘 47:4; 암 9:7). 그들이 가나안의 남서부 지역, 즉 지금의 가자 지구(Gaza Strip)를 점령했습니다(신 2:23).

자신들은 할아버지 대부터 그곳에서 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나사렛에 자신들과 같은 아랍 크리스천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들어선 후 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을 만난(창 21:34) 이래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삿 13:1), 사무엘(삼 4:1), 사울(삼 13:4), 다윗(삼 17:23)의 삶에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삼 17:4)입니다.

조직적인 차별로 인해 이스라엘의 아랍인들은 대개 가난하게 살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랍인들은 법적으로 이스라엘 시민이지만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땅이나 건물을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랍인들은 주변의 아랍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별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삿 15:18; 삼 14:6; 삼하 1:20).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다롯, 다곤, 바알 세뽀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삿 16:23; 삼 31:10; 왕하 1:2). 그들은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멸망하여 사라졌습니다(렘 47장).

또한 이스라엘에 사는 아랍 크리스천들은 인구의 73%를 차지하는 유대교인들과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슬람교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랍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재 97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인구 중 약 540만 명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000년이 넘도록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으며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볼 때 아랍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가자 지역과 웨스트뱅크(West Bank) 지역에 살고 있는데,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 가나안 족속들이 아랍화 된 사람들입니다. 19세기 이후 이집트인, 알제리아인, 보스니아인, 체르케스인 등이 유입되어 섞여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이슬람교의 수니파로 구성된 하마스(Hamas)가 이스라엘 남부를 습격하여 1,400명을 죽였습니다. 하마스는 2007년부터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Gaza Strip)를 통치해온 무장정파로서,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이슬람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즉각 반격을 가했고, 하마스가 있는 가자 북부지역에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 중 약 6%가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아랍 수도(Arab Capital)라고 알려져 있는 나사렛에는 약 8만 명의 이스라엘 아랍 시민들(Arab citizens of Israel)이 있는데, 그들 중 30% 이상이 크리스천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천은 2% 미만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Palestine) 지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로마제국이 붙여준 명칭입니다. 주전 63년 로마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은 '유대'(Judea)라고 불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2차 반란(Bar Kokhba Revolt, 주후 132-136)을 일으킨 이후, 로마의 하드리아(Hadrian) 황제는 유대를 시리아 팔레스티나(Syria Palaestina)라고 개명했습니다. 반란에 대한 징벌로 유대인들과 유대 땅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방문한 여행객들을 극진히 맞아준 아랍 크리스천 부부는 나사렛 침례교 학교에서 기독교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환경은 비록 열악하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삶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표정에서 학생들을 향한 헌신감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에서 유래했으며 '블레셋(Philistines) 족속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블레셋은 히브리어 필리스티아(Philistia)에서 나왔으며 '이방인 또는 방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노아의 아들 함의 계보에 속하는 가슬루힘의 후손으로서 호전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랍 크리스천으로서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하라고 한 베드로의 가르침이 생각나는 저녁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속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불통이 그들에게까지 튀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jonk@db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필라델피아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편지

캄보디아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할렐루야!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한 커버넌트 미션 신학교의 첫 학기도 어느 사이 6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학교도, 학생들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에 오니 장소는 너무 협소하지만, 물 걱정이 충분하게 쓸 수 있고, 전기도 끊어짐 없이 잘 들어오니 이것도 참 기쁨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면서,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1. 전도 훈련

새 학기 바로 시작한 8월 26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전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2시간씩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성경 읽고, 전도에 관한 훈련을 4주간 받고, 벌써 현장으로 나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학교에서 1시간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한 후, 전도 현장으로 나갑니다. 적어도 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1000명 이상에게 전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현장을 체험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졸업을 할 거라 믿어집니다. 현장을 나간지 2주밖에 안 되었는데, 크고 작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 후 전도할 때 일어난 일들을 나누는 시간 또한 너무 재미있고 은혜를 받습니다.

2. 새 학생

(1) 페루에서 이삭이라는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 페루 현지인 목사 아들로 이삭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개혁 신학을 공부하러 비행시간만 50시간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2) 라니 라는 필리핀 학생이 코비드 때 온라인으로 과목을 이수하고 이번에 Th.M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학교에 왔습니다. 주말에는 필리핀에서 온 자비량 처녀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곳을 방문해보니 너무도 은혜스러웠습니다. 주중에는 이곳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거기서 나오는 월급으로 모든 사역에 경비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 유럽 젊은 이들은 선교에 헌신이 적는데, 지금 필리핀, 인도, 중국 등 아시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의 우리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3. 감사

(1)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건축 회사에서 저희 학생 2명에게 장학금과 용돈까지 후원해 주



셨습니다.

(2) 워싱턴 엘림교회에서 자동차 구입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3) 베트남 칸 목사님: 우리 학교 학생 부모님이신데, 개학 때 50 Kg의 쌀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학교를 위해 금식까지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로 오신 지 20년이 되는데, 그동안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받은 핍박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참 싫어합니다. 전쟁으로 땅도 많이 빼기고, 많은 이유로 싫어하는데, 이곳에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엔 그 지역에서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식사도 대접 받고, 많은 것을 함께 나눴습니

다.

<기도 제목>

- 1. 종교부에 신학교가 10월 말까지 순조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2. 동남아에서 소명 받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3. 신학교 재정을 위한 후원자들과 연결되도록
4. 선교사 부부가 뒤엎것을 잊고 제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에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입니다. 함께 동역해주시는 여러분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김석훈, 김용경 선교사 드림

감사시

이 권사님의 감사

윤일흠

새벽공기 툭툭 터뜨리면서 여기로 오는 귀 익은 지팡이 소리 높은 여인은 하던 대로 다리 끌며 예배당 맨 앞자리로 간다

이 권사님은 십수년 동안 남편 수발을 든다 물이랑 음식, 약, 용변, 목욕 챙기느라 어렵으로 밤을 비우다 오곤 한다

몸은 저리 누워 있어도 제 남편 숨이라도 편히 쉬게 해 주세요 저는 괜찮으니 버려 두시고 지금처럼 20년 이 할미와 같이만 있게만 해 주십시오 영감 없이 전 못 삽니다요

이번 감사절에는 저이랑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당신은 평생 내 사람이야' 이런 말도 한 번 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 닳아빠진 저의 무릎 대신 나무 지팡이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요

수수한 우리네 여인 목청 높여 드리는 감사기도 눈물은 툭툭 바지 위에 떨어지는데

은퇴 목사/ 선교사/ 창조 문학/ 시전 회원 시집 <거기 빛이 있기에>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 국가명 파푸아뉴기니
▲ 종족명 께오루-아히아종족
▲ 인구 5,970명
▲ 종교 민속종교 5%, 복음화율 95%
▲ 복음 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필

길프 주에 산다. 강 상류 마을(아히아), 해변과 내륙 마을(께오루), 해변 마을(빠이리)로 나뉘고 3개의 방언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지만 여전히 전통 종교를 믿고 주술과 마술을 한다. 복음화율은 높지만 대부분 가톨릭과 이단이다.

▲ 기도제목

- 1. 자신의 말에 대한 자부심이 큰 께오루-아히아 종족 사람들을 도와 성경 번역을 시작할 사역자를 보내 주시도록
2. 께오루-아히아 종족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믿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섬겨주실 분을 찾습니다

조용한 도시 NEW Mexico에 소재한 교회입니다.

소속 교단은 장로교회 미국교단 Cumberland Presbyterian이며 담임목사님의 건강문제로 후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주 적은교회여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자비량 선교(목회)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연령은 상관없으며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으로 뜻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유목사 (915)329-3451 or (915)329-8826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교회)

겨우살이 준비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고,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뒤통에 코로나에 걸려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 모자를 쓰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옛날 이맘때쯤이면 겨우살이(wintering)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겨울철 두꺼운 옷, 고구마 같은 먹을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난방시설이 열악해, 추운 겨울을 나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땀감을 모으고, 연탄 광을 치우고 연탄을 들여놓았습니다. 동네 이웃이 함께 모여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갔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쪽 찢은 김장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을 때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양념에 밥을 비벼 먹으면 최고였습니다. 김장만 하면 월동준비는 끝이었습니다.

겨울나기 준비는 나무들도 합니다. 무성했던 잎을 다 떨어내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둡니다. 그것은 잎사귀에 수분을 뺏기지 않고, 혹독한 추위를 견뎌 살아남기 위함입니다. 동물도 월동준비를 합니다. 땅속, 굴, 바위틈 등, 겨울을 보낼 공간을 마련합니다. 먹을 것을 많이 비축하고, 동면에 들어갑니다. 곰, 다람쥐, 개구리, 뱀 등은 겨울잠을 자면서 봄을 기다립니다. 곰은 5개월 동안 잠을 자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간헐던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겨우살이 준비를 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숙히 오라고 당부합니다.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책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책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구약성경 책으로 여겨집니다. 겨우살이를 위해 따뜻한 옷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순교합니다. 진정한 그의 월동준비는 세상을 떠날 준비였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겨우살이 준비 이상 중요한 것은 죽음의 준비,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입니다. 냉혹한 겨울 같은 인생의 말년을 잘 준비해야, 천국에서 아름답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딤후4:21)

bible66@gmail.com

신앙 에세이



류응명 목사  
(와성분중양장교회)

창조적 소수

인류 문명의 발달과정을 잘 보여주는 역사책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도전'과 '응전' 그리고 '창조적 소수'입니다. 인간 사회가 새롭게 발전을 할 때 반드시 다가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합니다. 어둠을 돌파하고 나올 때 인류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 어둠의 시대와 힘겨운 환경을 뚫고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토인비는 기존 생각과 다른 접근을 시도합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문명의 발전을 위하여 안락한 환경을 강조해 왔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의 배경을 말할 때 공통점이 좋은 환경 여건이라고 여겼습니다.

토인비는 이러한 기존 세계관에 혁명적 수정을 요구합니다.

다. 인류 문명의 발전을 주도한 원인은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토인비의 가르침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범람해서 농사를 짓기에는 좋지 않지만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은 아닙니다. 응전을 위해 범람 시기를 정

확하게 측정하다 보니 천문학과 기하학이 발달해 왔고, 그것이 인류 문명 발전을 앞당겼습니다. 황하는 그 이름처럼 사시 사철 휴탕 물이 흐르는 강일 뿐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어둠을 뚫고 돌파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 역사는 발전했습니다. 토인비는 이런 사람을 창조적 소수라 부릅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어둠이 세상을 덮을 때마다 시대의 등불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12제자들은 유대교 종교를 뚫고 나왔고,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 당하는 로마의 칼날을 뚫고 세상의 중간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지중해의 영적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중세의 어둠을 뚫고 진리를 선포한 마르틴 루터 한 사람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고, 진젠드르프라는 한 사람으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빛으로 물들인 선교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온 세상은 현재 영적 팬데믹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이 무너지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원리를 따라 남녀가 아닌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기독교 종주국이라는 영국은 교회를 다니는 비율보다 이슬람의 회중을 다니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개신교의 아버지 존 칼빈의 숨결이 녹아있는 프랑스는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 미만입니다. 벌써 무슬림의 비율도 10%가 넘었습니다. 영적 위기라는 팬데믹을 앓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이 엄청난 도전 앞에 응전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역사의 도전 앞에 영적으로 응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preachchrist@kcpc.org



베드로 진서 11

무엇이 부러운가?

나는 어릴 때 잘 사는 사촌 가정이 부러웠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면 놀러간다는 핑계로 가서 밥을 먹고 온 적도 있다.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이 가진 공책이나 연필이 부러웠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다른 친구들이 어울리면서 학교 외의 시간에 영화 구경이나 등산 또는 승마 등 특별한 활동

을 하며 지내는 것이 부러웠다. 나에게 물질적 여유도 없었거니와 통학을 하느라 기차 시간에 바빴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에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카세트나 기타 타자기 등이 부러웠다. 게다가 함께 어울리면서 영화도 보고 짧은 여행도 하는 게 부러웠으나 물질의 여유가 없는 나는 그들이 연애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부러

웠다. 신학교 다닐 때도 그놈의 가난 때문에 참으로 피곤했고 주변의 모든 것이 부러웠다.

목사가 된 뒤에도 다른 교회가 예배당을 갖고 있거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부러웠다. 물론 나중에 나도 모든 것을 갖게 되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오늘 나는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숨도 잘 쉬고 아무런 부담 없이 걸어 다니고 모두의 심장이 평평 뛰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부러운 시간이 된 것이다. 그렇다. 삶에 부러운 것이 너무나 많았겠지만 지금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레 살아야 한다.

revpeterk@hotmail.com



5.20% APY\*

18 Month Certificate of Deposit<sup>1</sup>

4.60% APY\*

Premier Money Market Account<sup>2</sup>  
On Balances Over \$50,000

3.00% APY\*

Business Money Market Account<sup>3</sup>  
On Balances Over \$50,000

1. \*APY = "Annual Percentage Yield." Offer valid on a 18 Month CD with a minimum opening deposit of \$500 per tax ID. Once the initial 18 Month CD time has elapsed, the CD will roll over for an additional 18 Month CD at the prevailing interest rate. This will continue until customer notifies the Bank within ten (10) days of maturity date. Promotion begins at 9:00AM EST on October 16, 2023;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without notice. Early withdrawal penalty may apply; fees may reduce earnings. Other 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  
2. \*APY = "Annual Percentage Yield." Exclusive Premier Money Market Account offer at The Bank of Princeton valid on NEW MONEY ONLY. No minimum deposit to open account. No monthly service charges. Interest compounded daily and credited monthly. No minimum balance required to earn interest.  
\*\* See rate sheet for current interest rates.  
Offer begins at 9:00AM EST on April 1, 2023;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without notice. See fee schedule for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charges. Other 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  
3. \*APY = "Annual Percentage Yield." Business Money Market Account promotion available at Elkins Park, Flushing, Fort Lee, Jericho, and Palisades Park branches ONLY. Offer valid on NEW MONEY ONLY and for NEW BUSINESS ACCOUNTS ONLY. New Money cannot be funds held at The Bank of Princeton prior to the opening of this Business Money Market account. Interest compounded daily and credited monthly.  
\*\* See rate sheet for current interest rates.  
Offer begins at 9:00AM EST on June 5, 2023;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without notice. See fee schedule for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charges. Other 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



www.thebankofprinceton.com | 609.921.1700



저희 프린스턴 은행은 한인 고객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자 및 예금 상품 안내를 포함한 궁금하신 사항은 www.thebankofprinceton.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문외는 플러싱·제리코·포트리·팰리세이즈파크·엘킨스파크 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